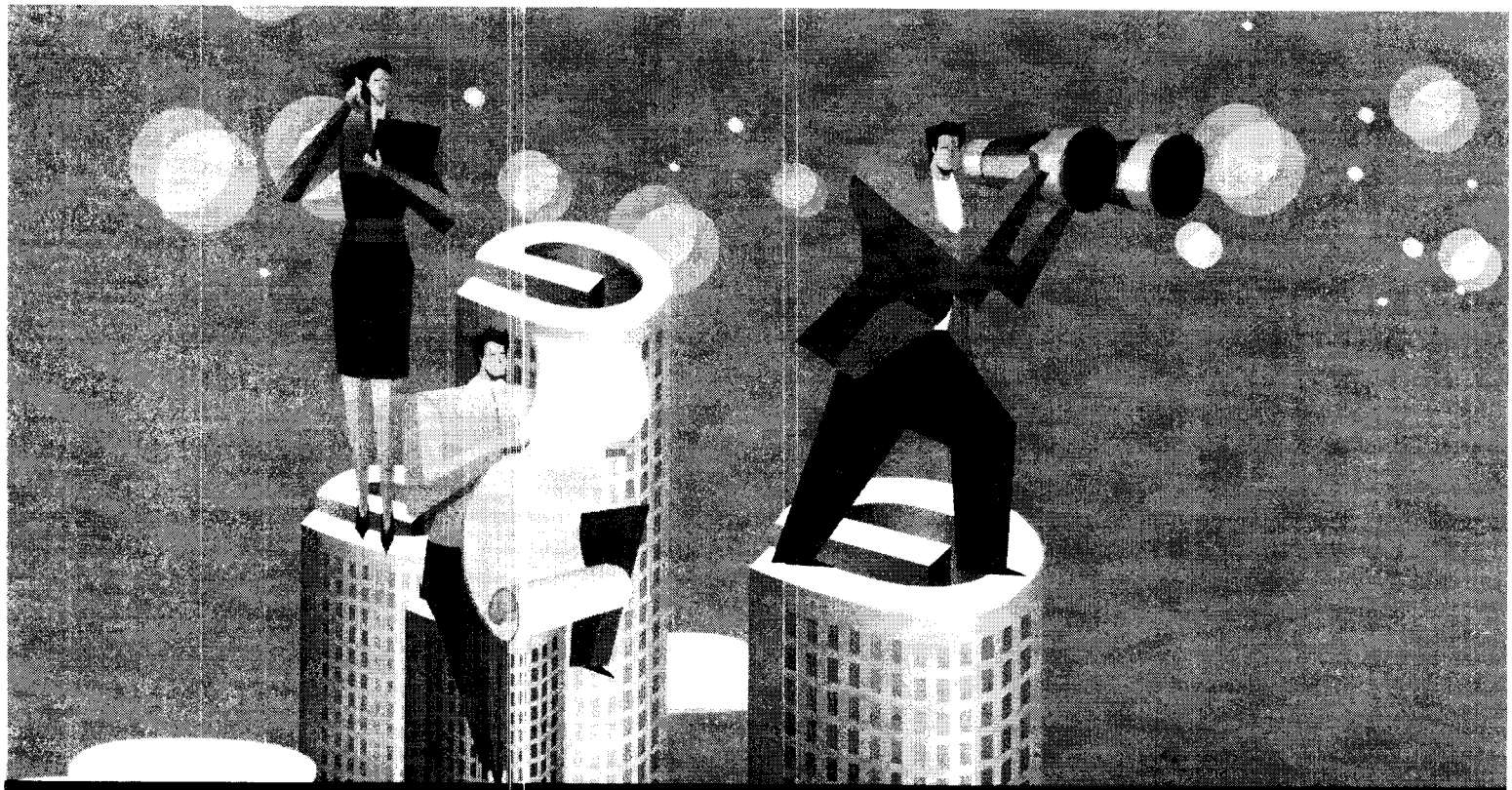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2006. 6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 출 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북도에서 본 연구원에 의뢰한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6월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 이 재 충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및 총괄

김 진 덕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진

김 홍 식 (주성대학 금융정보과 교수)

윤 창 훈 (충청대학 회계학과 교수)

이 동 수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 택 희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훈 수 (충북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이 근 우 (충북인적자원개발센터 위촉연구원)

▶ 연구지원

안 순 옥 (충북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충북 노동시장의 현황 ····· 9

제1절 충북 경제의 산업구조 ····· 9

1. 산업별 GRDP 현황 ····· 9

2. 산업구조의 특징 ····· 10

제2절 충북의 노동수요 현황 ····· 14

1.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 14

2. 연령별·학력별 노동수요 현황 ····· 15

제3절 충북의 노동공급 현황 ····· 17

1. 고등교육기관의 노동공급 현황 ····· 17

2. 고등교육기관의 진학 및 졸업 현황 ····· 19

3. 고등교육기관의 산업별 취업 현황 ····· 22

제4절 충북 노동수급 현황 ····· 23

1. 충북 실업현황 및 추이 ····· 23

2. 충북 노동수급 현황 ····· 25

제3장 충북 청년층 노동수급 실태 분석 ····· 31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31

제2절 충북 청년층 노동공급 실태 분석 ····· 35

1. 청년층 학력별 노동공급실태 ····· 35

2. 청년층 희망 직종별·업종별 취업희망 실태 ····· 45

3. 청년층 희망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실태 ····· 47

4. 청년실업자의 실태분석 ····· 49

제3절 충북 청년층 노동수요 실태 분석 ····· 55
1. 산업별 노동수요 실태 ····· 55
2. 산업별 · 직종별 노동수요 실태 ····· 62
3. 직종별 노동수요 실태 ····· 66
4.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 67
제4절 청년층 노동실태분석의 시사점 ····· 69

제4장 청년실업 요인 분석 ····· 77
제1절 노동수요 측면 ····· 78
1. 경기적 영향 ····· 78
2. 산업구조 변화 ····· 82
3. 채용관행 변화 ····· 87
4. 중소기업의 청년층 인력 유인 취약 ····· 88
제2절 공급측면 ····· 89
1. 대학교의 고학력자 양산 ····· 89
2.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 91
3. 대학 교과과정 운영의 능동적 대응 부족 ····· 95

제5장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 99
제1절 사례분석 ····· 100
1. 선진국 사례분석 ····· 100
2.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109
3. 지방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116
제2절 단기적 정책과제 도출 ····· 117
1.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117
2. 정책과제 ····· 118
제3절 중 · 장기적 정책과제 도출 ····· 128
1.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128
2. 정책과제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5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2005년도 전국의 실업자는 88만명으로 실업률은 3.7%이고 이 중 청년층 실업자는 38만명으로 실업자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8.0%에 달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05년도 충북의 실업자는 16천명으로 실업률은 2.2%를 나타내 전국 전체실업률보다 1.5%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실업자는 8천명으로 충북 전체 실업자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6.2%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비율을 보면 전국의 경우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2배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는 전체실업률의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청년실업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시적인 고용 흡수력의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향과 서비스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1)]

○ 특히,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한 데 반해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구조적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함

○ 이러한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1) 김석진, 양희승,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2004.

□ 단기간 내에 청년실업의 해소는 불투명[2)]

○ 향후 5년간 핵심 연령층인 25~29세 청년 인구의 증가로 청년세대의 취업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학력과 일자리 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하향취업이 늘어나고 일자리 만족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추세 역시 당분간 크게 역전되기는 어려워 청년층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청년층의 실업난과 경제적 고통을 해소를 위한 대책 요구

○ 청년층의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은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와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청년층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청년층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의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충북지역 노동 및 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2) 김석진, 양희승,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LG경제연구원, 2004.

- 충북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의 특징 및 청년실업에 대한 현황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심각성 및 문제점을 파악

○ 도내 노동 공급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청년층의 노동수급 상의 불일치 정도 파악

- 도내 대학생, 실업계고등학생,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점 파악
- 노동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채용희망 연령·직종·임금 등 근로여건을 조사

□ 충북 청년실업의 요인분석을 통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청년층의 희망직종, 임금, 근로조건과 기업의 근로여건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충북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

- 전통적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고찰
- 구직자와 기업 간 Job mismatch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 연구결과 및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충북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실행력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충북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 해외 선진국의 사례 및 국내사례를 통해 적용가능한 청년실업 대책 탐색
- 충북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 도출
- 충북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도출

제2장

충북 노동시장의 현황

제2장 충북 노동시장의 현황

제1절 충북 경제의 산업구조

1. 산업별 GRDP 현황

□ 두드러진 2차산업의 성장세

○ 2004년 기준 충북의 GRDP는 235,523억원으로 전국 GRDP의 3.4%를 점유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은 4.8%로 전국 5.0%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충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IT 및 BT산업 육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산업별 성장률은 1차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차산업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비중면에서도 1차, 3차산업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2차산업은 꾸준히 증가함

□ 충북의 서비스업 부문 발전은 미흡함

○ 2004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 전체 GRDP 중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5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2차산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성장률 역시 2.8%로 낮아 다른 지역보다 3차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1차산업은 전국적 추세와 같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평균보다 더 빠

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기준 충북 GRDP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5.6%)은 전국평균(3.3%)보다 높으나 연평균성장률(-3.6%)은 전국평균(-0.8%)보다 낮아 충북의 1차산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표 2-1> 충북 GRDP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0년		2004년		연평균 성장률
		십억원	비 중	십억원	비 중	
전 국	GRDP	577,970.9	100.0	702,805.9	100.0	5.0
	1차산업	23,750.7	4.1	22,986.6	3.3	-0.8
	2차산업	151,029.5	26.1	193,302.0	27.5	6.4
	3차산업	339,877.8	58.8	405,730.4	57.7	4.5
충 북	GRDP	19,521.4	100.0	23,552.3	100.0	4.8
	1차산업	1,521.6	7.8	1312.8	5.6	-3.6
	2차산업	7,191.9	36.8	9870.2	41.9	8.2
	3차산업	8,994.4	46.1	10,047.7	42.7	2.8

자료 : 통계청, Kosis.

주 : 1) 지역별 GRDP는 순생산물세가 포함된 것임.

2) GRDP는 2000년 기준가격임.

2. 산업구조의 특징

□ 사업체수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90%이상 점유

○ 2004년 기준 충북의 산업별 사업체수 비중은 광공업 8.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이 91.2%를 점유하고 있고 이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49.3%를 점유하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된 반면 서비스업은 그 규모의 영세성 및 신규창업의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산업별 사업체수 증가율은 건설업이 가장 높은 5.1%를 보이고 있고 전기, 운수, 창고, 금융업이 4.6%,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간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업이 지역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 전국평균보다 낮은 사업체수 증가율

○ 충북지역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평균(1.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2-2> 산업별 사업체수 추이

(단위 : 개, %)

구 분		2000		2004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전국	합 계	3,013,417	100.0	3,189,890	100.0	1.4
	· 농림어업	3,061	0.1	2,325	0.1	-6.6
	· 광공업	315,312	10.5	330,183	10.4	1.2
	- 제조업	313,246	10.4	328,338	10.3	1.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2,695,044	89.4	2,857,382	89.6	1.5
	- 건설업	66,621	2.2	83,891	2.6	5.9
	- 도소매음식숙박업	1,524,403	50.6	1,522,067	47.7	0.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794,095	26.4	875,639	27.5	2.5
	- 전기운수창고 금융	309,925	10.3	375,785	11.8	4.9
충북	합 계	94,736	100.0	96,771	100.0	0.5
	· 농림어업	94	0.1	89	0.1	-1.4
	· 광공업	8,019	8.5	8,474	8.8	1.4
	- 제조업	7,943	8.4	8,401	8.7	1.4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86,623	91.4	88,208	91.2	0.5
	- 건설업	2,528	2.7	3,086	3.2	5.1
	- 도소매음식숙박업	50,289	53.1	47,675	49.3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4,849	26.2	26,723	27.6	1.8
	- 전기운수창고 금융	8,957	9.5	10,724	11.1	4.6

자료 : 통계청, Kosis.

- 이는 충북의 사업체가 2차산업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국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충북지역의 건설업 증가율은 5.1%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신규창업은 다른 산업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업체의 증가는 향후 행정복합도시의 건설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더불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증가율은 -1.3%로 최근의 지역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충북 전략산업의 높은 특화도

○ 종사자의 기준으로 비금속광물의 특화계수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충북의 북부권을 중심으로 석회석 관련 산업의 발달에 기인함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1.51로 반전되었음

- 이는 IT 중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입주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관련산업의 입주업체 및 종업원의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

○ 2004년 음식료품 제조업의 특화계수는 1.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산업임을 알 수 있음

○ 화합물 및 화학제품 특화계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충북의 전략산업인 BT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줌

<표 2-3> 산업별 특화계수(LQ) 추이

업종별	사업체 기준					종사자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음·식료품 제조업	2.16	2.32	2.33	2.23	1.80	1.66	1.82	1.88	1.87	1.75
담배 제조업	9.21	6.72	5.74	6.02	2.44	5.18	-	-	-	0.13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72	0.72	0.71	0.68	0.62	1.01	0.97	0.98	0.99	0.8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1	0.08	0.07	0.08	0.41	0.07	0.07	0.06	0.09	0.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28	0.27	0.23	0.25	0.17	0.60	0.56	0.59	0.66	0.5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95	0.92	1.00	0.94	1.11	0.54	0.51	0.52	0.58	0.7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2	1.40	1.36	1.43	1.15	1.57	1.68	1.60	1.71	1.6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50	0.49	0.49	0.44	0.71	0.39	0.36	0.39	0.35	0.3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72	1.68	1.11	1.39	1.23	0.08	0.09	0.08	0.12	0.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4	2.68	2.67	2.63	2.08	1.96	1.73	1.89	1.83	1.6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9	1.53	1.50	1.40	1.09	1.23	1.54	1.49	1.44	1.4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48	2.33	2.30	2.35	2.08	2.23	2.31	2.21	2.25	2.13
제 1차 금속산업	1.06	0.98	0.99	1.03	0.74	0.42	0.44	0.37	0.45	0.4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92	0.93	0.92	0.96	0.78	0.83	0.87	0.85	0.86	0.8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67	0.64	0.66	0.65	0.58	0.60	0.53	0.56	0.54	0.5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78	0.77	0.63	0.81	0.70	0.52	0.66	0.61	0.47	0.3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27	1.17	1.18	1.16	0.96	1.43	1.31	1.44	1.48	1.4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30	1.25	1.24	1.11	0.93	1.77	1.61	1.55	1.42	1.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73	0.73	0.55	0.62	0.59	0.93	0.99	0.87	1.01	1.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62	0.67	0.70	0.75	0.65	0.34	0.41	0.40	0.46	0.5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50	0.56	0.53	0.49	0.41	0.15	0.21	0.12	0.12	0.15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44	0.46	0.45	0.42	0.92	0.68	0.68	0.64	0.56	0.72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5	1.67	1.76	2.13	2.42	1.04	0.93	0.99	1.17	1.54

자료: 통계청, Kosis.

제2절 충북의 노동수요 현황

1.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 취업자수 기준 충북의 산업구조는 전국 대비 1차산업 부문은 높고 2·3차산업의 비중은 낮음

○ 2005년 기준 충북의 산업별 취업자수는 3차산업이 46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2%, 2차산업이 125천명으로 18.3%, 1차산업이 93천명으로 13.6%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은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우 감소하고 있으며 3차산업은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은 충북이 0.5%로 전국평균 1.6%보다 크게 낮음

<표 2-4>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5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국	21,156	100.0	22,856	100.0	1.6
· 농림.어업	2,243	10.6	1,815	7.9	-4.1
· 광공업	4,310	20.4	4,251	18.6	-0.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4,603	69.0	16,789	73.5	2.8
충북	665	100.0	682	100.0	0.5
· 농림.어업	149	22.4	93	13.6	-9.0
· 광공업	137	20.6	125	18.3	-1.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80	57.1	465	68.2	4.1

자료 : Kosis.

주 : 연평균증가율은 '00~'05 연평균증가율임.

2. 연령별·학력별 노동수요 현황

1) 연령별 노동수요 현황

□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

○ 15세~29세의 청년층의 취업자수가 200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5세~19세의 취업자수가 전국적으로 연평균 9.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

<표 2-5>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5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 국	합 계	21,156	100.0	22,856	100.0	1.6
	15~19세	389	1.8	243	1.1	-9.0
	20~29세	4,490	21.2	4,207	18.4	-1.3
	30~39세	6,137	29.0	6,122	26.8	0.0
	40~49세	5,277	24.9	6,305	27.6	3.6
	50~59세	2,899	13.7	3,599	15.7	4.4
	60세이상	1,963	9.3	2,381	10.4	3.9
충 북	합 계	665	100.0	682	100.0	0.5
	15~19세	12	1.8	6	0.9	-12.9
	20~29세	130	19.5	111	16.3	-3.1
	30~39세	174	26.2	170	24.9	-0.5
	40~49세	162	24.4	191	28.0	3.3
	50~59세	99	14.9	107	15.7	1.6
	60세이상	88	13.2	97	14.2	2.0

자료 : Kosis.

주 : 연평균증가율은 '00 ~ '05의 연평균증가율임.

○ 충북의 경우 15세~29세 청년층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도 더 낮아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 15세~19세 취업자수의 연평균증가율은 -12.9%로 전국평균(-9.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임
- 20세~29세 청년층 취업자수도 연평균증가율이 -3.1%로 전국평균(-1.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나타냄

2) 학력별 노동수요 현황

□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전체취업자의 17.1%에서 2005년 24.9%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 역시 8.3%로 전국의 7.3%를 상회하고 있음

-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2000년 40.6%에서 2005년 34.8%로 낮아지고 있고 연평균 증감률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6> 학력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5		연평균 증감률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국	계	21,156	100.0	22,856	100.0	1.6
	초졸이하	3,590	17.0	3,033	13.3	-3.3
	중졸	3,031	14.3	2,627	11.5	-2.8
	고졸	9,325	44.1	9,791	42.8	1.0
	대졸이상	5,209	24.6	7,406	32.4	7.3
	전문대졸	1,579	7.5	2,279	10.0	7.6
	대학교졸이상	3,630	17.2	5,127	22.4	7.1
충북	계	665	100.0	682	100.0	0.5
	초졸이하	179	26.9	140	20.5	-4.8
	중졸	91	13.7	91	13.3	0.0
	고졸	281	42.3	281	41.2	0.0
	대졸이상	114	17.1	170	24.9	8.3
	전문대졸	37	5.6	56	8.2	8.6
	대학교졸이상	77	11.6	114	16.7	8.2

자료 : Kosis.

주 : 연평균증가율은 '00 ~ '05의 연평균증가율임.

○ 2005년 충북의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2%임

- 전문대졸 취업자는 5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나타나 전국평균(7.6%)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취업자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에 의한 충북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가 꾸준히 이루어져 향후 충북 전략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제3절 충북의 노동공급 현황

1. 고등교육기관의 노동공급 현황

□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노동공급은 최근 증가추세로 반전

○ 2005년 충북지역의 고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기관은 861교, 학생수는 395,149명이고 교원수는 19,836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3.5명임

○ 1999년 이후부터 학교수와 학생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르러 다소 증가했음

- 교원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05년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26,296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57.2%를 차지하고 있어 168,853명의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함

- 연도에 따라 남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표 2-7> 충북지역 고등교육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성 별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남	여		
2000	850 (35)	384,299	214,011	170,288	15,438	24.9
2001	849	397,103	226,026	171,077	15,390	25.8
2002	842	393,770	223,498	170,272	15,913	24.7
2003	841 (32)	392,651	223,102	169,549	16,327	24.0
2004	857 (31)	387,318	218,533	168,785	17,000	22.8
2005	861(29)	395,149	226,296	168,853	16,836	23.5
일반계 고등학교	49	35,528	18,140	17,388	2,198	16.2
실업계 고등학교	30	18,969	10,515	8,454	1,333	14.2
전문대학	6	29,025	20,089	8,936	494	58.8
교육대학	1	1,975	446	1,529	66	29.9
대학(교)	10	94,761	64,100	30,661	2,260	41.9
대학원	30	8,583	3,948	4,635	146	58.8

자료 : 충청북도, [교육통계연보], 2004. 4.

주 : ( )는 분교수이며 학교수에 미포함, …는 해당숫자 미상.

□ 고등교육기관의 학교수 및 학생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낮음

○ 2005년 충북지역의 전국 대비 비중은 전문대의 경우 학교수 3.8%, 학생수 3.4%이고, 대학(교)은 학교수 4.6%, 학생수 4.5%이며 대학원은 학교수 2.9%, 학생수 3.5%임

○ 전문대 학교수 비중은 전국에서 12위, 대학(교) 학교수 비중은 전국에서 7위, 대학원 학교수 비중은 12위를 차지

○ 대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이지만, 대학원과 같은 고급인력의 양성체계는 도내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실정

<표 2-8> 지역별 고등교육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서울	12(7.6)	66,852(7.8)	38(22.0)	446,599(24.0)	367(34.9)	132,133(46.8)
부산	10(6.3)	68,873(8.1)	11(6.4)	179,114(9.6)	64(6.1)	18,085(6.4)
대구	7(4.4)	60,237(7.1)	3(1.7)	60,591(3.3)	32(3.0)	11,173(4.0)
인천	5(3.2)	38,827(4.6)	4(2.3)	38,829(2.1)	23(2.2)	5,878(2.1)
광주	7(4.4)	38,393(4.5)	8(4.6)	75,414(4.1)	42(4.0)	11,180(4.0)
대전	5(3.2)	36,626(4.3)	8(4.6)	86,448(4.6)	52(4.9)	12,208(4.3)
울산	2(1.3)	12,834(1.5)	1(0.6)	19,164(1.0)	7(0.7)	2,235(0.8)
경기	36(22.8)	244,128(28.6)	26(15.0)	222,770(12.0)	152(14.5)	22,442(8.0)
강원	10(6.3)	26,642(3.1)	8(4.6)	86,849(4.7)	35(3.3)	7,331(2.6)
충북	6(3.8)	29,025(3.4)	8(4.6)	82,968(4.5)	31(2.9)	9,882(3.5)
충남	7(4.4)	33,369(3.9)	13(7.5)	162,857(8.8)	63(6.0)	11,686(4.1)
전북	10(6.3)	30,904(3.6)	9(5.2)	97,463(5.2)	47(4.5)	10,606(3.8)
전남	10(6.3)	38,419(4.5)	10(5.8)	51,123(2.7)	28(2.7)	4,457(1.6)
경북	18(11.4)	67,801(7.9)	18(10.4)	160,323(8.6)	67(6.4)	11,602(4.1)
경남	10(6.3)	45,654(5.4)	6(3.5)	72,403(3.9)	32(3.0)	9,149(3.2)
제주	3(1.9)	14,505(1.7)	2(1.2)	16,724(0.9)	9(0.9)	2,178(0.8)
합계	158(100.0)	853,089(100.0)	173(100.0)	1,859,639(100.0)	1,051(100.0)	282,225(100.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4.

주 : ( )는 전국 대비 비중.

2. 고등교육기관의 진학 및 졸업 현황

□ 고교 졸업자수는 감소 추세, 대학 진학률은 증가 추세

○ 최근 4년 동안 고교 졸업생은 2000년 24,188명에서 2005년에는 18,28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2000년 68.7%에서 2005년 83.7%로 급증하고 있음

○ 일반계고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의 진학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실업계고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2000년 8.8%에서 2005년에는 23.8%로 급증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실업계를 졸업한 이후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주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공과 관련한 직업 선택과 고등학교의 전공을 심화할 수 있는 대학 교육 등의 현실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함

<표 2-9> 충북 고교 대학진학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5			연평균 증가율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졸업자수		12,885	11,303	24,188	11,546	6,739	18,285	-5.4
진학자수	4년제 대학	8786	993	9779	8,687	1,607	10,294	1.0
		(68.2)	(8.8)	(40.4)	(75.2)	(23.8)	(56.3)	
	전문대학	2765	4073	6838	2,076	2,933	5,009	-6.0
		(21.5)	(36.0)	(28.3)	(18.0)	(43.5)	(27.4)	
	계	11551	5066	16617	10763	4540	15303	-1.6
		(89.6)	(44.8)	(68.7)	(93.2)	(67.4)	(83.7)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주 : ( )는 졸업자 진학률.

□ 전국보다 높은 전문대학, 대학교 취업률

○ 2005년 취업 현황을 보면 대학교의 경우는 61.6%, 전문대학의 경우는 80.1%가 취업을 하여, 대학교 보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훨씬 높음

○ 전국 총계와 비교해 보면 대학교와 전문대학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표 2-10> 충북지역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진학자수	진학률	졸업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진학자수	진학률
서울	69,903	40,523	58.0	10,359	14.8	18,807	12,465	66.3	1,137	6.0
부산	26,481	15,699	59.3	2,182	8.2	18,475	14,393	77.9	2,088	11.3
대구	8,771	4,536	51.7	806	9.2	15,153	12,797	84.5	399	2.6
인천	5,404	3,096	57.3	641	11.9	10,895	8,111	74.4	403	3.7
광주	10,589	4,824	45.6	864	8.2	10,447	8,510	81.5	421	4.0
대전	12,454	7,170	57.6	1,243	10.0	9,693	7,551	77.9	638	6.6
울산	2,748	1,613	58.7	263	9.6	3,285	2,807	85.4	123	3.7
경기	32,095	19,669	61.3	4,098	12.8	61,401	47,015	76.6	2,647	4.3
강원	11,688	6,686	57.2	1,148	9.8	7,139	4,967	69.6	516	7.2
충북	**11,513**	**7,097**	**61.6**	**879**	**7.6**	**7,994**	**6,402**	**80.1**	**641**	**8.0**
충남	20,750	13,051	62.9	1,959	9.4	8,644	6,865	79.4	656	7.6
전북	14,213	7,072	49.8	1,076	7.6	8,962	6,697	74.7	532	5.9
전남	7,593	4,198	55.3	447	5.9	11,575	8,956	77.4	513	4.4
경북	21,959	11,962	54.5	1,710	7.8	19,588	16,266	83.0	775	4.0
경남	10,375	6,295	60.7	801	7.7	12,896	10,920	84.7	600	4.7
제주	2,297	1,051	45.8	176	7.7	3,809	3,197	83.9	132	3.5
합계	268,833	154,542	57.5	28,652	10.7	228,763	177,919	77.8	12,221	5.3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취업통계자료집], 2005.

○ 그러나 전국보다 높은 취업률이 모두 충북지역에 취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3. 고등교육기관의 산업별 취업 현황

□ 대학졸업자의 경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

<표 2-11> 충북지역 고등교육기관 산업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업 종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실업계		일반계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농림어업	23	1.3	4	2.5	27	1.4	50	1.0	54	1.7	158	1.3
광업	-	-	-	-	-	-	4	0.1	8	0.3	12	0.1
제조업	1,156	63.1	68	43.0	1,224	61.5	1,146	23.7	485	15.4	4,079	34.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4	1.3	9	5.7	33	1.7	36	0.7	38	1.2	140	1.2
건설업	35	1.9	10	6.3	45	2.3	494	10.2	244	7.7	828	6.9
도매 및 소매업	96	5.2	5	3.2	101	5.1	186	3.8	145	4.6	533	4.5
숙박 및 음식점업	11	0.6	5	3.2	16	0.8	164	3.4	85	2.7	281	2.3
운수업	6	0.3	-	-	6	0.3	58	1.2	26	0.8	96	0.8
통신업	50	2.7	-	-	50	2.5	121	2.5	63	2.0	284	2.4
금융 및 보험업	46	2.5	-	-	46	2.3	72	1.5	102	3.2	266	2.2
부동산 및 임대업	-	-	-	-	-	-	22	0.5	11	0.3	33	0.3
사업 서비스업	117	6.4	22	13.9	139	7.0	291	6.0	235	7.4	804	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0.8	6	3.8	21	1.1	346	7.2	219	6.9	607	5.1
교육서비스업	6	0.3	-	-	6	0.3	456	9.4	834	26.4	1,302	1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	1.0	-	-	18	0.9	766	15.8	284	9.0	1,086	9.1
기타서비스업	186	10.2	24	15.2	210	10.6	119	2.5	111	3.5	650	5.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	1.1	5	3.2	25	1.3	480	9.9	190	6.0	720	6.0
가사서비스업	22	1.2	-	-	22	1.1	21	0.4	18	0.6	83	0.7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1	0.0	4	0.1	5	0.0
합계	1,831	100.0	158	100.0	1,989	100.0	4,833	100.0	3,156	100.0	11,967	100.0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교육통계연감], 2005.

○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7.1%로 나타남

- 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보면 기타서비스업(10,6%),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1%)에 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23.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는 75.3%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음

○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대한 취업률은 15.4%로 나타나 대졸자들이 제조업 취업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82.9%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9.0%, 건설업 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4절 충북 노동수급 현황

1. 충북 실업현황 및 추이

□ 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 전국실업률 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산업구조 및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실망실업자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산업구조로 보아 양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질적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표 2-12> 실업률 추이

(단위 : %, 배)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전체실업률(A)	4.4	4.0	3.3	3.6	3.7	3.7
	- 15~29세(B)	8.1	7.9	7.0	8.0	8.3	8.0
	- 30~59세	3.5	3.0	2.4	2.5	2.6	2.8
	- 60세 이상	1.5	1.2	1.1	1.0	1.2	1.3
	배율(C = B/A)	1.8	2.0	2.1	2.2	2.2	2.2
충북	전체실업률(A)	3.6	3.5	2.6	3.1	2.7	2.2
	- 15~29세(B)	7.2	8.1	7.8	7.3	8.2	6.2
	- 30~59세	2.9	2.4	1.5	2.4	1.7	1.6
	- 60세 이상	0.0	1.1	0.0	0.6	0.3	0.4
	배율(C = B/A)	2.1	2.3	3.0	2.4	3.1	2.8

자료 : Kosis.

주 : 연평균증가율은 '00~'05의 연평균증가율임.

○ 청년실업률 또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충북 전체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최근의 청년실업이 충북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전국의 경우 2005년에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충북의 경우에는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2002년에 1.5%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중년층의 실업률에 비해 장년층의 실업률은 낮은 추세를 보일 것이나 퇴직 및 정리해고 등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충북 노동수급 현황

1) 연령별 노동수급 현황

□ 청년층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심화

○ 20대 청년층의 취업률(취업자수/구직자수)을 비교하면 2000년도에는 21.5%의 취업률에 비해 2004년도에는 28.7%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낮은 수준

- 충족률(취업자수/구인자수)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47.8%에서 2005년에는 57.3%로 다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
-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인력수급의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및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가 심각함을 의미

○ 일자리 경쟁배수(=구직인원/구인인원) 또한 2000년에는 2.2배에서 2005년에는 2.0배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상기의 자료분석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이므로 실제로 나타나는 노동수급의 불일치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

<표 2-13> 충북지역 연령별 노동수급 현황

(단위 : 명, 배, %)

구 분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	일자리경쟁배수	충족률
2000	20대 이하	26	4,701	645	13.7	180.8	2,480.8
	20대	8,836	19,645	4,227	21.5	2.2	47.8
	30대	5,525	11,273	1,414	12.5	2.0	25.6
	40대	7,839	11,975	1,111	9.3	1.5	14.2
	50대	253	17,407	1,339	7.7	68.8	529.2
	60세 이상	102	4,290	347	8.1	42.1	340.2
	합계	22,581	69,291	9,083	13.1	3.1	40.2
2005	20대 이하	4	944	199	21.1	236.0	4,975.0
	20대	9,212	18,411	5,283	28.7	2.0	57.3
	30대	8,955	12,029	3,081	25.6	1.3	34.4
	40대	1,733	8,496	1,997	23.5	4.9	115.2
	50대	271	6,864	1,091	15.9	25.3	402.6
	60세 이상	120	2,696	323	12.0	22.5	269.2
	합계	20,295	49,440	11,974	24.2	2.4	59.0

자료 : 노동부, 워크넷(www.work.net).

주 : 취업률=취업자수/구직인원, 일자리경쟁배수=구직인원/구인인원, 충족률=취업자수/구인인원.

2) 학력별 노동수급 현황

□ 고학력일수록 취업률은 낮고 충족률은 높음

○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1년에 비해 2005년 7.3%p, 충족률의 경우에는 35%p 높아진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률 및 충족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자의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5년 28.5%로, 충족률은 72.8%로 2001년에 비해 각각 10.5%p, 6.1%p 높아진 것으로 분석

- 취업률과 충족률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률과 충족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률에 비해 충족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자리수보다 구직자수가 훨씬 더 많아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임

<표 2-14> 충북지역 학력별 노동수급 현황

(단위 : 명, 배, %)

구 분		구인자수	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	일자리 경쟁배수	충족률
2001	초졸 이하	114	17,458	2,901	16.6	153.1	2544.7
	중졸	1,804	7,154	1,084	15.2	4.0	60.1
	고졸	19,442	22,918	4,395	19.2	1.2	22.6
	전문대졸	1,974	7,291	1,316	18.0	3.7	66.7
	대졸	983	8,553	1,077	12.6	8.7	109.6
	대학원졸 이상	8	108	13	12.0	13.5	162.5
	합계	24,325	63,482	10,786	17.0	2.6	44.3
2005	초졸 이하	15	6,876	1,008	14.7	458.4	6720.0
	중졸	1,284	5,112	1,097	21.5	4.0	85.4
	고졸	9,752	21,196	5,615	26.5	2.2	57.6
	전문대졸	3,103	7,938	2,260	28.5	2.6	72.8
	대졸	706	8,143	1,952	24.0	11.5	276.5
	대학원졸 이상	20	175	42	24.0	8.8	210.0
	합계	14,880	49,440	11,974	24.2	3.3	80.5

자료 : 노동부, 워크넷(www.work.net).

주 : 취업률=취업자수/구직인원, 일자리경쟁배수=구직인원/구인인원, 충족률=취업자수/구인인원.

3) 고용형태별 노동수급 현황

□ 정규직 및 시간제 고용은 상승한 반면 계약제 고용은 감소

○ 고용형태별 취업률을 보면 정규직, 시간제 고용의 경우 2001년에 비해 다소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제 고용의 경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기업들의 채용관행이 점차로 정규직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취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고용형태별 충족률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에는 2001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시간제 및 계약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정규적, 시간제, 계약제 고용 모두 구인난 및 구직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 2-15> 충북지역 고용형태별 노동수급 현황

(단위 : 명, 배, %)

구 분		구인자수	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	일자리 경쟁배수	충족률
2001	정규직	21,090	57,911	8,495	14.7	2.7	40.3
	시간제	136	130	15	11.5	1.0	11.0
	계약제	2,980	2,274	2,261	99.4	0.8	75.9
	무관	114	1,965	14	0.7	17.2	12.3
	합계	24,320	62,280	10,785	17.3	2.6	44.3
2005	정규직	18,478	41,353	10,167	24.6	2.2	55.0
	시간제	1171	213	80	37.6	0.2	6.8
	계약제	2,427	2,192	938	42.8	0.9	38.6
	무관	159	5,138	789	15.4	32.3	496.2
	합계	22,235	48,896	11,974	24.5	2.2	53.9

자료 : 노동부, 워크넷(www.work.net).

주 : 취업률=취업자수/구직인원, 일자리경쟁배수=구직인원/구인인원, 충족률=취업자수/구인인원.

제3장

충북 청년층 노동수급 실태 분석

제3장 충북 청년층 노동수급 실태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청년층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충북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4년제 대학 졸업생까지

○ 조사시기 : 2006년 3월 2일 ~ 2006년 3월 31일

○ 조사방법 : 총 952명에 대하여 학교별 방문

<표 3-1> 학력별 재학 및 졸업여부

구 분	재학·졸업 여부	응답자수	비율
고등학교	재학	166	79.8
	졸업예정	37	17.8
	졸업	5	2.4
	소계	208	100.0
전문대학	재학	281	88.6
	졸업예정	34	10.7
	졸업	2	0.6
	소계	317	100.0
4년제 대학	재학	352	83.2
	졸업예정	42	9.9
	졸업	29	6.9
	소계	423	100.0

<표 3-2> 학력별 전공분류

구 분	전공	응답자수	비율
고등학교	공업계	202	98.1
	비공업계	4	2.0
	기타	-	-
	소계	206	100.0
전문대학	공업계	247	78.7
	비공업계	47	15.0
	기타	20	6.4
	소계	314	100.0
4년제 대학	공업계	279	66.3
	비공업계	136	32.3
	기타	6	1.4
	소계	421	100.0

○ 응답자의 학력비중은 고등학교 21.9%, 전문대학 33.4%, 4년제 대학 44.6%

○ 응답자의 대부분이 재학중인 학생이고,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대부분이 공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

- 전반적으로 재학 중인 공업계 학생이 주요 설문대상임

□ 사업체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충북지역 소재 제조업 및 서비스업

○ 조사시기 : 2006년 3월 2일 ~ 2006년 3월 31일 까지

○ 조사방법 : 제조업의 경우 각 시·군 협조하에 우편, 서비스업의 경우 업체 방문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교

<표 3-3> 사업체의 업종분포

구 분	빈도	비율
제조업	183	38.61
서비스업	283	59.70
기타	8	1.69
합 계	474	100.0

<표 3-4>표본기업의 평균특성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산규모(억원)			1,613.48	14,277.59	109.66	445.62	1,135.79	11,801.22
매출액(억원)			3,611.10	39,734	37.21	136.97	2,787.79	34,863.44
근로자수	상근 여부	상근	80.75	199.53	11.17	26.76	38.64	131.30
		비상근	9.63	7.23	3.68	4.76	4.64	5.64
		총원	82.31	200.10	11.52	25.96	38.28	129.09
	직종	연구 개발직	6.26	12.57	8.00	13.04	6.50	12.56
		기술직	12.48	27.60	5.74	7.62	10.53	23.55
		기능직	48.51	65.54	5.99	7.45	34.39	136.53
		단순 노무직	29.34	43.39	3.99	5.34	17.05	33.60
		사무직	14.39	28.18	10.27	14.67	12.31	23.46
		영업직	6.25	8.57	10.50	31.10	8.69	24.42

○ 서비스업은 소규모 업종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10~15배 정도 규모임

○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근직원의 비중이 훨씬 높음

○ 제조업은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으나 서비스업은 사무직과 영업직의 비중이 높음

<표 3-5>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		표본수	백분율
업종별 분류	산업분류코드(중분류)		
비금속광물	12	2	0.4
식품제조	15	30	6.5
섬유제조	17	11	2.4
펄프 및 제지제조	21	2	0.4
출판, 인쇄	22	3	.6
화학 및 화합물제조	24	14	3.0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25	12	2.6
유리 및 요업제조	26	18	3.9
철강제조	27	7	1.5
금속제품 제조	28	16	3.4
기계제조	29	13	2.8
전기제품 제조	31	13	2.8
전자제품 제조	32	26	3.4
자동차 및 부품제조	34	7	1.5
선박,철도,항공기 제조	35	3	0.6
가구제조	36	6	1.3
금속가공원료 생산	37	1	0.2
종합건설	45	19	4.1
전문직 공사	46	4	0.9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	50	14	3.0
도매 및 상품중개	51	2	0.4
소매업	52	51	11.0
숙박 및 음식업	55	50	10.8
육상운송	60	9	1.9
통신	64	5	1.1
금융	65	10	2.2
보험 및 연금	66	3	0.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67	2	0.4
부동산업	70	7	1.5
사업지원서비스	75	12	2.6
교육서비스업	80	34	7.3
보건업	85	17	3.7
사회복지사업	86	3	0.6
영화, 방송 및 공연	87	6	1.3
기타 오락, 문화	88	8	1.7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90	1	0.2
기타서비스	93	33	7.1
합 계		474	100.0

제2절 충북 청년층 노동공급 실태 분석

1. 청년층 학력별 노동공급실태

□ 향후희망진로

<표 3-6> 학력별 향후 희망진로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취업	43	20.8	264	86.3	346	82.8	653	70.1
② 창업	2	1.0	18	5.9	18	4.3	38	4.1
③ 진학	161	77.8	21	6.9	49	11.7	231	24.8
④ 자발적 실업	1	0.5	3	1.0	5	1.2	9	1.0
합 계	207	100.0	306	100.0	418	100.0	931	100.0

○ 전반적으로 70.14%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77.78%가 진학을 희망하여 대조를 나타냄

-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8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희망비율이 매우 높음

○ 고등학교는 응답대상이 실업고임에도 진학중심 성향이 높은 것에 대한 실업고의 교육시스템 개편 또는 취업전환 방안 필요

□ 취업할 기업 선정 시 가장 비중을 두는 요소

<표 3-7> 취업 선정시 주요 고려 요소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업종	43	20.9	67	21.8	107	26.0	217	23.4
② 직종(부서)	28	13.6	52	17.0	102	24.8	182	19.6
③ 보수	102	49.5	115	37.5	105	25.6	322	34.7
④ 회사명	4	2.0	14	4.6	7	1.7	25	2.7
⑤ 생활환경	23	11.2	54	17.6	81	19.7	158	17.0
⑥ 기타	6	3.0	5	1.6	9	2.2	23	2.5
합 계	206	100.0	307	100.0	411	100.0	927	100.0

○ 전반적으로 보수가 3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은 업종, 직종, 보수를 유사한 비중으로 인식 하고 있음
- 충북 사업체의 보수수준에 대한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 직업선택의 기준

<표 3-8> 직업선택 기준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전공과의 적합성	15	7.2	61	1.81	87	21.1	163	17.6
② 적성과 흥미와의 일치도	92	44.2	104	33.8	195	47.3	391	42.1
③ 경제적인 수입	56	26.9	66	21.4	72	17.5	194	20.9
④ 사회적인 공헌도	1	0.5	2	0.7	0	0.0	3	0.3
⑤ 평생근무 보장성	41	19.7	70	22.7	57	13.8	168	18.1
⑥ 기타	3	1.4	5	1.6	1	0.2	9	1.0
합 계	208	100.0	308	100.0	412	100.0	928	100.0

○ 전반적으로 적성과 흥미와의 일치도가 4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이어서 경제적 수입, 평생근무 보장, 전공과의 적합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공과의 적합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나,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전공선택에 대한 진로지도의 강화가 필요함
- 사회적 공헌도가 극히 낮은 것은 직업선택 철저하게 개인성향 중심으로 나타남

□ 취업대비 중점준비항목

<표 3-9> 취업대비 준비항목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전공공부	75	19.0	161	25.2	193	22.7	429	22.8
② 어학공부	62	15.7	102	16.0	297	35.0	461	24.5
③ 상식공부	33	8.4	18	2.8	14	1.7	65	3.5
④ 컴퓨터 관련	33	8.4	41	6.4	43	5.1	117	6.2
⑤ 자격증 취득	121	30.7	210	32.8	223	26.2	554	29.4
⑥ 복수전공/부전공	9	2.3	53	8.3	41	4.8	103	5.5
⑦ 취업정보 수집	52	13.2	50	7.8	33	3.9	135	7.2
⑧ 기타	9	2.3	5	0.8	6	0.7	20	1.1
합 계	394	100.0	640	100.0	850	100.0	1,884	100.0

주 : (1응답자 2문항 선택)

○ 전반적으로 취업대비를 위하여 자격증, 어학, 전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등학생, 전문대생과 달리 4년제 학생은 어학공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고등학생, 전문대학생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준비 비중이 가장 높음

□ 학과공부와 취업준비의 관련성

<표 3-10> 학과공부와 취업관련성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학과공부와 취업준비가 아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39	18.8	131	42.3	131	34.4	301	32.2
② 전혀 개별적이다	44	21.2	25	8.1	24	5.8	93	10.0
③ 무시할 수는 없으나 취업준비는 별도로 해야 한다	97	46.9	102	32.9	191	45.8	390	41.8
④둘 다 병행해야 한다	27	13.0	52	16.8	71	17.0	150	16.1
합 계	207	100.0	310	100.0	417	100.0	934	100.0

○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취업준비는 별도로 해야한다' 는 비율이 41.76%로 가장 높아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이 목적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취업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함

- 전문대학만이 '학과공부가 취업에 아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의 비율이 42.26%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는 18.84%로 매우 낮음
- 고등학교의 경우 학과공부와 취업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함

□ 취업을 위한 대비정도

<표 3-11> 취업대비 수준

구 분	빈도수(%)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18	8.7	29	9.4	70	16.7	117	12.5
② 정보 수집중이다	50	24.2	143	46.1	192	45.8	385	41.1
③ 관심만 가지고 있다	118	57.0	128	41.3	149	35.6	395	42.2
④ 하고 있지 않다	21	10.1	10	3.2	8	1.9	39	4.2
합 계	207	100.0	310	100.0	419	100.0	936	100.0

○ 관심만 가지고 있는 수준이 42.20%, 정보 수집 중이 41.13%로 구체적인 취업준비의 비중이 매우 낮음

- 고등학교의 경우 관심만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67.00%로 매우 높아 고등학생에 대한 취업대비 교육이 필요함
-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80% 정도가 정보수집과 관심을 갖고 있어 취업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음

□ 취업정보 수집통로

<표 3-12> 취업정보 수집통로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신문/방송	37	10.0	52	8.6	97	12.3	186	10.5
② 선배 및 친구	71	19.1	137	22.6	212	26.9	420	23.8
③ 교수나 학과 사무실	49	13.2	133	22.0	86	10.9	268	15.2
④ 전문 취업 정보지	16	4.3	52	8.6	50	6.4	118	6.7
⑤ 학교 취업지도 부서	32	8.6	25	4.1	20	2.5	77	4.4
⑥ 가족이나 친지	44	11.9	41	6.8	34	4.3	119	6.8
⑦ 인터넷	105	28.3	144	23.8	247	31.4	496	28.1
⑧ 노동부 산하기관	1	0.3	7	1.2	10	1.3	18	1.0
⑨ 취업설명회나 소개서	8	2.2	12	2.0	25	3.2	45	2.6
⑩ 기타	8	2.2	2	0.3	7	0.9	17	1.0
합 계	371	100.0	605	100.0	788	100.0	1,764	100.0

주 : 1 응답자 2문항 선택

○ 취업정보는 학력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고, 다음으로 선배 및 친구로 나타남. 청년층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나타냄

- 선배 및 친구, 교수나 학과사무실이 전체의 39.00%로 대인관계에 의한 취업정보 수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취업부서를 통하는 경우가 낮고, 반대로 선배나 친구를 통하는 경우가 높으며 고학력 학교의 취업부서 역할이 약함

□ 취업의 저해요인

<표 3-13> 취업 저해요인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37	18.1	71	23.1	88	22.3	304	33.5
②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60	29.3	129	41.9	214	54.2	403	44.4
③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	71	34.6	32	10.4	36	9.1	139	15.3
④ 외모가 출중하지 않다는 점	6	2.9	7	2.3	5	1.3	18	2.0
⑤ 사회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	9	4.4	11	3.6	15	3.8	35	3.9
⑥ 전공에 대한 지식부족	15	7.3	53	17.2	27	6.8	95	10.6
⑦ 기타	7	3.4	5	1.6	10	2.5	22	2.4
합 계	205	100.0	308	100.0	395	100.0	908	100.0

○ 외국어 능력부족이 44.38%로 가장 높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외국어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4년제의 절반 이상이 외국어 수준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의 불량을 저해요인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지방대 출신이라는 요인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할 때,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

□ 구직어려움에 대한 인식

<표 3-14> 구직에 대한 인식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찾고 있는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3.13	1.05	2.90	0.92	2.94	0.97	2.97	0.98
② 취업을 위한 정보가 없거나 충분치 못하다	3.25	1.03	3.07	0.87	3.11	0.93	3.13	0.94
③ 자리는 있으나 보수나 고용조건이 맞지 않다	3.10	0.95	3.18	0.85	3.00	0.92	3.09	0.91
④ 기능이나 기술자격증이 없다	3.37	1.08	3.26	0.98	3.25	0.96	3.28	1.00
⑤ 나 자신의 구직노력이 부족하다	3.00	10.44	2.99	0.91	2.93	0.97	2.96	0.97
⑥ 학교의 취업대책에 만족한다	2.54	10.26	2.85	0.83	2.46	0.86	2.61	0.91
⑦ 전공이 취업희망분야와 일치한다	2.41	1.18	3.27	1.01	3.27	1.06	3.08	1.13

주 :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전반적으로 중심화 경향을 보이며, 기능이나 기술 등의 자격증 부족을 가장 크게 긍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취업대책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 견해를 보임

- 일자리 부족, 취업정보 부족, 고용조건, 자격증, 전공의 일치정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등학생의 인식이 부정적임
- 따라서 학교의 취업지원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충북지역 취업에 대한 선호도

<표 3-15> 충북지역 취업선호도

구 분	총응답자수	선호		비선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등학교	207	126	60.87	81	39.13
전문대학	311	188	60.45	123	39.55
4년제 대학	409	176	43.03	233	56.97
합 계	927	490	52.86	437	47.14

○ 전체적으로 선호가 전체 응답자의 52.86%로 비선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고등학생과 전문대학생은 충북을 선호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나, 4년제 대학은 비선호가 56.97%로 선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4년제 고학력자는 충북을 이탈하여 취업하고자하는 성향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충북권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충북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표 3-16> 충북지역 취업희망 이유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지리적으로 인접한 통근의 용이성	101	43.7	154	43.8	140	41.4	395	42.9
②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보수	8	3.5	14	4.0	8	2.4	30	3.3
③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근로 조건	12	5.2	25	7.1	14	4.1	51	5.5
④ 충북기업에 대한 신속한 적응가능	34	14.7	56	15.9	60	17.8	150	16.3
⑤ 타 지역에 대한 거부감	12	5.2	20	5.7	20	5.9	52	5.7
⑥ 타 지역으로의 낮은 이직 가능성	4	1.7	13	3.7	16	4.7	33	0.1
⑦ 지인 등의 배경 활용	15	6.5	17	4.8	39	11.5	71	7.7
⑧ 가족 부양 및 자녀교육 등의 편리성	42	18.2	50	14.2	40	11.8	132	14.3
⑨ 기타	3	1.3	3	0.9	1	1.0	7	0.8
합 계	231	100.0	352	100.0	338	100.0	921	100.0

주 : 1 응답자 2문항 선택

○ 지리적 통근의 용이성이 42.89%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타 지역에 비하여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의 우월함보다는 충북이라는 지리적 편리함을 선호하고 있음

○ 충북기업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가족부양 및 자녀교육의 편리성 등이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충북의 생활 문화와 정서, 가족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선호정도는 학력과 관계없이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기존 충북생활에 대한 고착화 경향이 충북취업의 선호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충북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표 3-17> 충북지역 취업기피 이유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자신의 전공(기술)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자리가 없음	21	16.0	39	17.2	85	21.3	145	19.1
②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보수	24	18.3	43	18.9	61	15.3	128	16.9
③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	17	13.0	34	15.0	63	15.8	114	15.0
④ 충북 기업 등 충북사업체에 대한 불신	4	3.1	13	5.7	14	3.5	31	4.1
⑤ 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7	5.3	8	3.5	13	3.3	28	3.7
⑥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이탈 욕구	35	26.0	55	24.2	92	23.0	182	24.0
⑦ 미래의 충북의 낮은 성장 가능성	17	13.0	27	11.9	59	14.8	103	13.6
⑧ 기타	6	4.6	8	3.5	13	3.3	27	3.6
합 계	131	100.0	227	100.0	400	100.0	758	100.0

주 : 1 응답자 2문항 선택

○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유가 2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막연한 타 지역의 동경과 충청북도의 이탈에 대한 성향은 충청북도 취업선택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자신의 전공기술 등을 발휘할 취업자리가 없다는 것이19.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충북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충북지역의 낮은 보수와 근로조건, 낮은 성장가능성이 10%를 상회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타 지역과의 보수 및 근로조건 비교가 필요하고, 충북의 성장에 대한 구체적 비전 제시가 필요함

□ 충북지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

<표 3-18> 충북지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노동력(구직자)의 질적 향상	32	8.2	149	24.6	132	16.3	313	17.3
②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 수 증가	148	37.9	201	33.2	242	29.8	591	32.7
③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임금 해소	41	10.5	27	4.5	101	12.4	169	9.4
④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근로 조건 개선	22	5.6	34	5.6	60	7.4	116	6.4
⑤ 산업별, 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재편성	66	16.9	63	10.4	100	12.3	229	12.7
⑥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취업주선 및 지원	12	3.1	35	5.8	48	5.9	95	5.3
⑦ 구인사업체의 구인에 대한 극적 홍보매체 활성화	12	3.1	25	4.1	24	3.0	61	3.4
⑧ 구인자의 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	35	9.0	44	7.3	54	6.7	133	7.4
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교육기회 확대	19	4.9	24	4.0	45	5.5	88	4.9
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원인분석 및 연구 활성화	4	1.0	3	0.5	6	0.7	13	0.7
합 계	391	100.2	605	100.0	812	100.0	1,808	100.0

주 : 1 응답자 2문항 선택

○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타지역에 비하여 적은 일자리 수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충북지역의 일자리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노동력(구직자)의 질적 향상이 17.31%, 산업별, 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재편성이 12.67%로 비교적 높은 편임

2. 청년층 희망 직종별·업종별 취업희망 실태

□ 취업희망직종

<표 3-19> 취업희망직종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직종	① 연구개발직	11	2.0	38	15.9	89	29.1	139	19.7
	② 기술직	49	31.1	73	30.5	75	24.3	197	27.9
	③ 기능직	24	15.3	32	13.4	22	7.1	78	11.1
	④ 단순노무직	4	2.6	3	1.3	3	1.0	10	1.4
	⑤ 사무직	58	36.9	82	34.3	106	34.3	246	34.9
	⑥ 영업직	11	7.0	11	4.6	14	4.5	36	5.1
	소계	157	100.0	239	100.0	309	100.0	705	100.0
분야	① 인사 · 교육	22	16.7	19	9.4	36	15.5	77	13.7
	② 경리 · 자금	6	4.6	18	8.9	12	5.9	36	6.4
	③ 기획 · 조사	3	2.3	7	3.5	20	9.9	30	5.3
	④ 홍보 · 광고	6	4.6	17	8.4	23	11.4	46	8.1
	⑤ 국내외 영업	1	0.8	5	2.5	12	5.2	18	3.2
	⑥ 연구 · 개발	7	5.3	15	7.4	44	19.0	66	11.7
	⑦ 품질 · 기술관리	8	6.1	44	21.8	15	6.5	67	11.8
	⑧ 설계 · 엔지니어링	19	14.4	15	7.4	35	15.1	69	12.2
	⑨ 전산	14	10.6	13	6.4	11	4.7	38	6.7
	⑩ 구매	1	0.8	-	-	1	0.4	2	0.4
	⑪ 마케팅	12	9.1	12	5.9	15	6.5	39	6.9
	⑫ 총무 · 관리	4	3.0	12	5.9	21	9.1	37	6.5
	⑬ 생산현장 시공관리	5	3.8	4	2.0	7	3.0	16	2.8
	⑭ 기타 특수직	24	18.2	26	12.9	25	10.8	75	13.3
	소계	132	100.0	202	100.0	232	100.0	566	100.0

○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3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 관계없이 사무직을 선호함

- 학력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직을 선호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기술직을 선호함
- 분야별로는 인사·교육 분야가 1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구개발, 품질·기술 관리, 설계·엔지니어링 등이 10%를 상회하고 있음

□ 취업희망업종

<표 3-20> 취업희망업종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농업·수산·광업	① 농업	9	64.3	7	36.8	-	-	16	48.5
	② 수산업	2	14.3	6	31.6	-	-	8	24.2
	③ 광업	3	21.4	6	31.6	-	-	9	27.3
	소 계	14	100.0	19	100.0	-	-	33	100.0
제조업	① 음·식료품	13	20.6	18	15.8	3	2.9	34	12.2
	② 섬유	-	-	-	-	3	2.9	3	1.1
	③ 봉제·가죽	-	-	-	-	-	-	-	-
	④ 목재·제지	-	-	-	-	6	5.9	6	2.2
	⑤ 화학 및 화합물	1	1.6	3	2.6	18	17.7	22	7.9
	⑥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	-	1	0.9	4	3.9	5	1.8
	⑦ 기계	7	11.1	9	7.9	17	16.7	33	11.8
	⑧ 금속	1	1.6	1	0.9	6	5.9	8	2.9
	⑨ 전자	15	23.8	34	29.8	19	18.6	68	24.4
	⑩ 전기	3	4.8	8	7.0	7	6.9	18	6.5
	⑪ 통신	2	3.2	6	5.3	4	3.9	12	4.3
	⑫ 의료·광학기기	14	22.2	20	17.5	11	10.8	45	16.1
	⑬ 자동차 및 부품	7	11.1	14	12.3	4	3.9	25	9.0
	소 계	63	100.0	114	100.0	102	100.0	279	100.0
서비스업	① 전기·가스	1	8.5	4	2.5	-	-	5	1.3
	② 도·소매	5	6.1	7	4.4	3	2.1	15	3.9
	③ 숙박 및 음식	1	8.5	9	5.6	4	2.8	14	3.6
	④ 운수	1	8.5	1	0.6	2	1.4	4	1.0
	⑤ 통신	10	12.2	19	11.9	18	12.4	47	12.1
	⑥ 금융·보험	3	3.7	19	11.9	12	8.3	34	8.8
	⑦ 부동산임대	1	8.5	1	0.6	-	-	2	0.5
	⑧ 교육서비스	16	19.5	22	13.8	39	26.9	77	19.9
	⑨ 사업서비스	7	8.5	14	8.8	25	17.2	46	11.9
	⑩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19	23.2	30	18.8	15	10.3	64	16.5
	⑪ 보건 및 사회복지	12	14.6	25	15.6	18	12.4	55	14.2
	⑫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6	7.3	9	5.6	9	6.2	24	6.2
	소 계	82	100.0	160	100.0	145	100.0	387	100.0

○ 학력에 관계없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업계임을 고려할 때 공업계에 대한 취업재교육 또는 서비스업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자부문이 2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광학 기기, 음· 식료품, 기계 분야가 10% 이상을 나타냄

○ 서비스업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분야가 16.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 및 사회복지, 통신, 사업서비스 분야가 10% 이상의 비중을 보임

3. 청년층 희망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실태

□ 희망보수

<표 3-21> 취업 후 희망보수

구 분	평균희망연봉(만원)	표준편차
고등학교	3,974	7,981.72
전문대학	2,284	972.49
4년제 대학	6,264	50,365.26

○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을 제외하고 현실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의 희망연봉이 전문대학보다 높은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 하다는 것을 나타냄
-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평균희망연봉은 7,049만원이나, 졸업예정자는 2,225만원, 졸업생은 2,764만원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 재학생에 대한 실제 보수현황의 교육이 필요함

○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경우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급간별 재분류

- 고등학교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38.50%, 4년제 대학의 경우 1001-2000만원이 49.38%로 가장 높고, 전반적으로 80%이상이 2000만원 이하임

<표 3-22> 급간별 취업 후 희망보수

구 분	1000만원 이하		1001-2000 만원		2001-3000 만원		4000만원 이상		전체 응답수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고등학교	72	38.5	70	37.4	18	9.6	27	14.4	187
전문대학	144	46.9	138	45.0	16	5.2	9	2.9	307
4년제 대학	133	33.0	199	49.4	47	11.7	24	6.0	403

□ 취업하는 희망 근로조건

<표 3-23> 취업후 희망 근로조건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주 5일제 근무	147	37.60	194	32.23	247	28.72	588	31.73
② 4대 보험 지원	16	4.09	79	13.12	73	8.49	168	9.07
③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85	21.74	82	13.62	125	14.53	292	15.76
④ 노동조합 활동 보장	8	2.05	14	2.33	12	1.40	34	1.83
⑤ 주택자금 지원	21	5.37	21	3.49	35	4.07	77	4.16
⑥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지급	22	5.63	43	7.14	96	11.16	161	8.69
⑦ 합리적 업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23	5.88	65	10.80	114	13.26	202	10.90
⑧ 사무실, 작업 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	53	13.55	75	12.46	107	12.44	235	12.68
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13	3.32	29	4.82	49	5.70	91	4.91
⑩ 기타	3	0.77	-	-	2	0.23	5	0.27
합 계	391	100.0	602	100.0	860	100.0	1,853	100.0

주 : 1 응답자 2문항 선택

○ 학력에 관계없이 주 5일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여가에 대한 관심 높음

- 근로자 및 본인의 학자금이 15.76%로 교육지원에 대한 선호 높음
- 노동조합 활동, 4대 보험과 같은 공식적 지원활동에 대한 관심 낮음

4. 청년실업자의 실태분석

○ 2005년 7.1~8.20까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실업자 376명 조사(남자 156명, 여자 220명)

□ 실업자 연령분포

<표 3-24> 실업자 연령분포

연령분포	빈도수	%
24세 이하	74	19.7
25-29세	99	26.3
30-34세	63	16.8
35-39세	44	11.7
40-44세	27	7.2
45-49세	23	6.1
50-54세	26	6.9
55세 이상	20	5.3
합계	376	100.0

○ 30세 미만이 전체의 46.0%로 절반 정도의 비중 차지

- 25-29세가 26.3%로 가장 높은 비중
- 청년실업자 비중이 높은 문제점 나타남

□ 실직경험 유무

<표 3-25> 실직경험

연령분포	경험(%)	비경험(%)
24세 이하	64.9	35.1
25-29세	88.9	11.1
30-34세	95.2	4.8
35-39세	93.2	6.8
40-44세	92.6	7.4
45-49세	100.0	.0
50-54세	92.3	7.7
55세 이상	100.0	.0

○ 24세 이하의 비경험률이 35.1%로 24세 이하는 1회의 취업도 획득하지 못한 실업자의 비중이 높음

- 24세 이하의 최초 취업기업 부여 필요
- 타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자의 취업기회 부족

□ 유형별 실직기간 비율

<표 3-26> 실직기간

연령분포	3개월 미만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4개월 이상
24세 이하	43.3	16.7	20.0	13.3	6.7
25-29세	37.1	30.3	19.7	7.3	5.6
30-34세	45.5	18.6	19.3	8.3	8.3
35-39세	35.8	29.4	18.3	9.2	7.3
40-44세	54.2	19.4	15.3	5.6	5.6
45-49세	56.0	26.0	14.0	-	4.0
50-54세	55.3	31.9	10.6	2.1	-
55세 이상	72.3	4.6	18.5	-	4.6

○ 대부분의 연령층이 3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직기간이 24세 이하는 3개월 미만이 43.3%, 25-29세는 3개월 미만이 37.1%로 가장 높아 비교적 실업기간은 단기

- 취업직장에 장기근속하지 못하고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향이 높음
- 장기근무가 가능한 직장여건 필요

□ 유형별 실직 전 직업종류

<표 3-27> 실직 전 직업

연령분포	관리직	교육 및 연구직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판매 및 개인서비스	건설 및 생산	농림·어업
24세 이하	3.2	1.1	31.6	13.7	18.9	31.6	-
25-29세	12.3	8.6	28.3	14.4	14.4	21.4	-
30-34세	9.9	8.7	24.8	9.9	13.0	33.5	-
35-39세	15.4	6.5	13.0	7.3	21.1	35.0	1.6
40-44세	19.7	-	9.2	3.9	38.2	28.9	-
45-49세	5.0	5.0	11.7	3.3	23.3	50.0	1.7
50-54세	13.2	1.9	3.8	7.5	30.2	39.6	3.8
55세 이상	9.9	1.4	-	4.2	36.6	47.9	-

○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사업서비스직과 건설 및 생산 업종에서 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 회계, 금융, 보험 등의 사업서비스직과 건설 및 생산 분야의 실업 감소방안 필요

5) 취업 및 창업 희망비율

<표 3-28> 취업 및 창업 희망 유형

연령분포	취업희망	창업희망	모두 원치 않음
24세 이하	90.0	4.6	5.3
25-29세	91.1	6.9	2.0
30-34세	82.9	13.5	3.5
35-39세	79.9	15.7	4.5
40-44세	69.6	29.1	1.3
45-49세	85.0	15.0	-
50-54세	77.8	16.7	5.6
55세 이상	75.3	9.1	15.6

○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층에서는 절대 다수가 취업을 희망

□ 취업희망직종비율

<표 3-29> 취업희망직종

연령분포	관리직	교육 및 연구직	사업 서비스	사회 서비스	판매 및 개인서비스	건설 및 생산	농림·어업
24세 이하	5.9	5.0	37.8	16.0	8.4	26.9	-
25-29세	12.8	8.0	33.0	16.0	8.5	21.3	-
30-34세	6.3	7.0	33.9	16.9	11.3	24.6	-
35-39세	14.2	4.7	18.9	10.4	20.8	30.2	0.9
40-44세	14.5	-	16.4	1.8	32.7	34.5	-
45-49세	3.9	2.0	9.8	11.8	19.6	49.0	3.9
50-54세	4.7	2.3	-	9.3	37.2	46.5	-
55세 이상	10.3	-	3.4	5.2	44.8	34.5	1.7

○ 사업서비스와 건설 및 생산직의 취업희망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서비스와 건설 및 생산직의 실업비율이 높으면서 취업희망비율이 높은 것은 실직된 업종에 다시 취업하려는 성향이 높음
- 사업서비스와 건설 및 생산직의 신규노동수요창출과 장기적 근속개념의 일자리 창출 필요

□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

<표 3-30>희망임금수준

(단위 : 만원)

연령분포	100미만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이상
24세 이하	13.7	62.4	18.8	4.3	-	.9	-
25-29세	7.1	48.9	29.3	11.4	2.2	1.1	-
30-34세	6.3	35.9	28.2	21.8	7.0	0.7	-
35-39세	13.1	36.4	19.6	14.0	11.2	3.7	1.9
40-44세	17.0	20.8	17.0	17.0	9.4	13.2	5.7
45-49세	15.7	35.3	13.7	27.5	3.9	2.0	2.0
50-54세	21.4	38.1	21.4	9.5	4.8	-	4.8
55세 이상	24.6	36.8	14.0	17.5	1.8	3.5	1.8

○ 월평균 임금 100-149(만원) 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월평균 임금 100-150(만원)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

□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표 3-31> 훈련기관 선호형태

연령분포	공공훈련시설	민간훈련시설	사업주훈련시설	대학	학원	기타
24세 이하	60.6	21.2	3.0	4.5	7.6	3.0
25-29세	57.3	23.3	6.8	3.9	5.8	2.9
30-34세	52.4	27.2	4.9	6.8	7.8	1.0
35-39세	53.2	26.6	7.6	2.5	10.1	-
40-44세	54.3	22.9	11.4	-	11.4	-
45-49세	78.6	14.3	-	3.6	-	3.6
50-54세	59.1	18.2	16.3	-	4.5	4.5
55세 이상	68.2	27.3	4.5	-	-	-

○ 직업훈련은 공공훈련시설과 민간훈련시설 순으로 선호비율 높음

- 공공훈련시설과 민간훈련시설에 대한 규모 및 시설투자에 의한 전문화 및 교육의 효율화 필요

<표 3-32> 선호훈련기간

연령분포	1-3개월	4-5개월	6개월	7-12개월	12개월 이상
24세 이하	30.8	30.8	23.1	6.2	9.2
25-29세	35.3	15.7	41.2	7.8	-
30-34세	36.0	16.0	42.0	6.0	-
35-39세	32.5	19.5	37.7	9.1	1.3
40-44세	48.5	6.1	39.4	6.1	-
45-49세	41.4	6.9	41.4	10.3	-
50-54세	78.3	4.3	17.4	-	-
55세 이상	68.2	4.5	22.7	4.5	-

○ 24세 이하에서는 6개월 미만을 선호하고, 25-29세는 6개월을 가장 선호

- 청년층 실업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은 6월 미만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표 3-33> 직업훈련기피사유

연령분포	훈련효과 낮음	훈련필요성 없음	생계유지 시급	훈련부적응	취업가능성 낮음	기타
24세 이하	6.0	26.0	28.0	6.0	14.0	20.0
25-29세	4.0	22.4	27.6	5.3	17.1	10.6
30-34세	8.2	26.5	36.7	2.0	14.3	12.2
35-39세	2.2	28.3	41.3	2.2	19.6	6.5
40-44세	3.7	29.6	37.0	-	26.0	3.7
45-49세	9.5	14.3	42.9	4.8	19.0	9.5
50-54세	-	11.1	22.2	11.1	33.3	22.2
55세 이상	6.3	-	31.3	6.3	25.0	31.3

○ 훈련기피사유로 생계유지가 시급하고 훈련필요성에 대한 인식 낮음

- 실업자의 생계에 대한 대규모 자금 필요
-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훈련내용의 부실 또는 훈련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제3절 충북 청년층 노동수요 실태 분석

1. 산업별 노동수요 실태

□ 최근 3년 동안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 비교

<표 3-34>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

구 분		경력직				신 입			
		남		여		남		여	
		평균 인원	표준 편차	평균 인원	표준 편차	평균 인원	표준 편차	평균 인원	표준 편차
2003년	제조업	5.04	7.26	3.20	3.99	9.30	17.87	14.36	41.61
	서비스업	3.41	5.77	4.53	8.73	5.83	16.82	4.21	5.98
	합계	4.31	6.48	3.94	7.29	8.17	17.48	8.95	29.42
2004년	제조업	7.53	14.63	5.03	8.15	9.59	27.97	14.59	55.95
	서비스업	2.37	2.44	2.95	6.25	2.40	2.73	2.82	3.45
	합계	2.57	4.94	3.69	7.00	7.11	22.97	8.15	38.18
2005년	제조업	6.75	17.68	4.18	4.59	22.63	194.48	34.71	219.80
	서비스업	2.30	2.08	2.39	4.89	12.38	50.08	2.74	3.99
	합계	4.67	13.04	3.02	4.80	15.88	96.64	17.04	147.43

○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모두 많음

- 전반적으로 경력직보다 신입사원의 채용이 많으며 특히 2005년에 신입사원 채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경력직의 경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남성의 채용인원이 많으나 신입사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의 채용인원이 많음

□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

<표 3-35> 최근 3년간 채용인원

구 분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연구개발직	51	25.74	50.13	4	57.50	38.62	55	29.33	50.27
기술직	65	40.20	69.46	34	83.06	35.36	99	72.00	33.47
기능직	79	63.11	205.13	53	85.51	30.35	132	72.11	159.82
단순노무직	60	49.18	42.73	70	83.51	34.03	130	67.22	41.97
사무직	75	44.45	41.92	103	84.89	31.25	178	67.57	41.34
영업직	49	33.39	39.04	51	87.35	39.04	100	60.91	44.14

○ 전체적으로 기술직과 기능직은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비율이 72%대가 되나, 연구개발직은 29.33%에 불과함

-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을 제외하고 80% 이상의 높은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이 훨씬 높음
- 특히 영업직에서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이 가장 높음
- 제조업은 기능직만이 63.11% 이고 나머지 부문에서 50%가 되지 않아 제조업의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 증대방안 필요
- 연구개발직은 제조업에서 25.74%에 불과하여 제조업 부문의 연구개발직 개발이 필요함

□ 인력채용 경로

<표 3-36> 인력채용경로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자사 홈페이지	23	12.7	36	13.5	59	13.1
② 잡 링크	14	7.7	13	4.9	27	6.0
③ 신문, 방송 등의 매체	28	15.5	79	29.7	107	23.8
④ 각 학교에 추천서 배부	16	8.8	13	4.9	29	6.5
⑤ 전문 취업정보지	34	18.8	63	23.7	99	22.1
⑥ 노동부 등의 외부기관 의뢰	24	13.3	3	1.1	27	6.0
⑦ 지인의 소개	35	19.3	37	13.9	72	16.0
⑧ 취업설명회	3	1.7	-	-	3	0.7
⑨ 기타	4	2.2	22	8.3	26	5.8
합 계	181	100.0	266	100.0	449	100.0

○ 신문, 방송등의 매체가 23.83%, 전문 취업정보지가 22.05%, 지인의 소개 16.04% 순으로 나타나, 대중 매체에 의한 인력 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로 제조업은 지인의 소개, 서비스업은 신문, 방송 등의 매체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임

○ 인력 공급측인 청년층은 인터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체도 대중 매체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의한 취업연계 활성화 관리가 필요함

□ 인력채용 시 주요 평가항목

<표 3-37> 채용 시 주요 평가항목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전공성적	11	6.2	18	6.7	29	6.6
② 어학실력	10	5.7	7	2.6	17	3.9
③ 컴퓨터 관련능력	13	7.3	16	6.0	26	5.9
④ 자격증 취득여부	20	11.3	46	17.2	66	14.9
⑤ 인성	79	44.6	134	50.0	213	48.3
⑥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	36	20.3	30	11.2	66	14.9
⑦ 기타	8	4.5	17	6.3	25	5.7
합 계	177	100.0	268	100.0	442	100.0

○ 업종에 관계없이 인성이 48.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격증 취득과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14.93%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채용 시 반영비율

<표 3-38> 채용 시 반영비율

구 분		항목 반영 비율평균(%)											
		자체 필기고사			인성 및 적성검사			어학능력			면접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연구개발직	비율평균	28.8	30.0	29.0	40.7	44.0	41.0	26.5	30.0	26.7	57.6	41.7	56.8
	표준편차	15.5	14.1	14.5	19.4	18.2	19.2	16.2	28.3	16.5	52.5	34.3	51.0
	응답수	8	2	10	43	5	48	33	2	35	61	6	67
	백분비전환비율	18.7	20.6	18.9	26.5	30.2	26.7	17.3	18.7	17.4	37.5	28.6	37.0
기술직	비율평균	30.0	34.0	32.2	42.7	50.0	44.2	29.8	43.3	31.3	61.4	73.9	64.8
	표준편차	14.1	15.2	14.0	19.0	30.8	21.5	17.2	40.4	20.2	29.3	32.3	30.4
	응답수	4	5	9	54	13	67	24	3	27	93	5	121
	백분비전환비율	18.3	16.9	18.7	26.1	24.9	25.6	18.2	21.5	18.1	37.5	36.7	37.6
기능직	비율평균	42.5	36.7	39.0	45.4	37.3	44.8	30.0	25.0	28.0	65.2	62.9	65.3
	표준편차	15.0	13.7	13.7	18.0	25.3	20.6	14.1	22.6	17.4	30.2	29.1	29.6
	응답수	4	6	10	51	11	62	9	6	15	98	34	132
	백분비전환비율	23.2	22.7	22.0	24.8	23.0	25.3	16.4	14.0	15.8	35.6	38.9	36.9
단순노무직	비율평균	40.0	36.7	38.3	41.7	59.6	48.0	25.0	30.0	27.8	72.0	80.7	75.8
	표준편차	17.3	23.1	18.4	19.8	32.7	26.3	20.8	29.2	24.4	26.5	27.5	27.1
	응답수	3	3	6	50	23	73	4	5	9	90	55	145
	백분비전환비율	22.4	17.7	20.2	23.3	15.8	25.3	14.0	14.5	14.6	40.3	39.0	39.9
사무직	비율평균	34.4	44.3	41.6	40.9	41.7	41.9	24.3	19.7	22.8	57.2	63.6	61.8
	표준편차	15.9	16.3	16.4	17.1	26.2	21.3	14.4	16.0	14.9	27.3	32.0	29.9
	응답수	9	21	30	63	35	98	36	18	54	97	77	174
	백분비전환비율	22.0	26.2	24.8	26.1	26.6	24.9	16.0	11.7	13.6	36.5	37.6	36.7
영업직	비율평균	32.0	38.0	35.0	44.0	52.9	46.4	29.0	15.0	27.2	52.9	84.2	68.9
	표준편차	17.9	21.7	19.0	20.4	26.4	22.2	16.3	5.8	16.0	30.5	27.0	32.7
	응답수	5	5	10	38	14	52	26	4	30	56	53	109
	백분비전환비율	20.3	24.9	24.5	27.9	34.7	32.5	18.4	9.8	19.0	33.6	55.2	48.3

※ 백분비 전환비율 = 직종별 해당항목 응답비율 평균/직종별 항목 응답비율 합계.

○ 전반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면접의 반영비율이 50%를 상회함

- 면접을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인성 및 적성부문의 반영비율이 높음
- 전반적으로 어학능력에 대한 반영비율은 낮은 편임

○ 업종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공능력보다 면접, 인성, 적성 등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음

- 인력양성 기관에서의 취업을 위한 면접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 선호도

<표 3-39> 충북지역 거주자 선호도

구 분	총응답자수	선호		비선호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제조업	175	168	96.0	7	4.0
서비스업	261	253	96.9	8	3.1
합 계	436	421	96.6	15	3.4
청년층의 충북지역 선호 응답	927	490	52.9	437	47.2

○ 업종에 관계없이 청년층에 비하여 사업체는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청년층의 충북지역 취업에 대한 낮은 선호와 사업체의 높은 선호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청년층의 충북지역 취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 선호도가 높은 이유

<표 3-40> 충북지역 거주자 선호이유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구직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접근의 용이성	153	40.2	196	46.0	349	43.2
② 타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업무처리 능력	7	1.8	22	5.2	29	3.6
③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보수로 채용 가능	21	5.5	23	5.4	45	5.6
④ 채용자의 충북기업에 대한 신속한 적응	60	15.8	53	12.4	113	14.0
⑤ 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충북인 특유의 양호한 정서	33	8.7	36	8.5	69	8.5
⑥ 낮은 이직가능성	79	20.7	74	17.4	153	19.0
⑦ 채용자의 지인 등 직원의 배경 활용	28	7.4	22	5.2	50	6.2
합 계	381	100.0	426	100.0	808	100.0

○ 지리적 접근 용이성이 업종에 관계없이 43.16%로 가장 높음

- 구직자도 지리적 접근성으로 충북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것 과 일치함
- 낮은 이직가능성, 신속한 적응 등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직자의 선호도와 유사함

○ 전반적으로 충북 기업의 보수나 근로조건 보다 지리적 접근성 및 충북의 정서적 적응용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정서에 대한 고착성향이 강함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

<표 3-4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 계		청년층 응답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노동력(구직자)의 질적 향상	54	32.7	102	19.1	156	22.3	313	17.3
②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수 증가	27	16.4	106	19.9	133	19.0	591	32.7
③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임금 해소	20	12.1	75	14.0	95	13.6	169	9.4
④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근로 조건 개선	16	9.7	49	9.2	65	9.3	116	6.4
⑤ 산업별, 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재편성	14	8.5	57	10.7	71	10.2	229	12.7
⑥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취업주선 및 지원	8	4.9	33	6.2	41	5.9	95	5.3
⑦ 구인사업체의 구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매체 활성화	5	3.0	23	4.3	28	4.0	61	3.4
⑧ 구인자의 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	12	7.3	63	11.8	75	10.7	133	7.4
⑨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교육기회 확대	8	4.9	24	4.5	32	4.6	88	4.9
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원인분석 및 연구 활성화	1	0.6	2	0.4	3	0.4	13	0.7
합 계	165	100.0	534	100.0	699	100.0	1,808	100.0

주 : 1응답 사업체 2문항 선택

○ 사업체는 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적 향상을 가장 비중있는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제조업 32.73%가 노동력 질적향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와 임금 등이 10%를 상회 하고 있음

○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비중 있게 인식하는 청년층과 대조를 나타냄

- 즉 노동의 수요원인 사업체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우선하고 있으나 노동의 수요원인 청년층은 일자리라는 양적 요인을 우선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적 향상, 산업별·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재편성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이 유사하여 취업 교육을 재편성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필요 있음

2. 산업별·직종별 노동수요 실태

□ 2006년 업체당 평균채용예정인원

<표 3-42> 업체당 평균 채용예정인원(2006년)

구 분		남				여			
		경력		신입		경력		신입	
		평균 인원	응답 기업수	평균 인원	응답 기업수	평균 인원	응답 기업수	평균 인원	응답 기업수
제조업	상근	6.6	63	7.8	72	4.0	11	49.4	42
	비상근	2.4	29	2.0	14	1.9	23	2.7	35
	소계	5.2	92	6.8	86	2.5	34	28.2	77
서비스업	상근	2.4	29	2.4	5	2.4	5	8.9	7
	비상근	1.2	9	1.2	6	1.2	6	1.3	8
	소계	1.2	9	1.7	11	1.7	11	4.8	15

○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많고, 비상근보다 상근직원을 보다 많이 채용하려함

- 제조업의 경우 남·여 모두 경력사원보다 신입사원을 보다 많이 채용하려 하고, 상근 신입 여사원에 대한 채용인원이 매우 많음
- 서비스업의 경우 비상근 직원은 경력과 신입의 비율이 비슷하고, 상근 신입여사원의 채용인원 많음
- 전체적으로 상근 신입여직원의 채용계획 높음

□ 산업별 채용예정인원

<표 3-43> 산업별 채용예정인원(2006년)

산업분류(중분류)		채용예정인원								
업종별 분류	산업분류코드	남				여				합계
		경력		신입		경력		신입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상근	비상근	
비금속광물	12	5	-	1	-	8	-	1	-	15
식품제조	15	23	-	59	1	-	-	36	47	166
섬유제조	17	1	-	15	-	-	-	20	-	36
펄프 및 제지제조	21	-	-	-	-	-	-	-	-	0
출판, 인쇄	22	6	-	7	-	-	-	5	-	18
화학 및 화합물제조	24	5	-	13	2	-	-	11	-	31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25	21	-	19	2	3	-	4	3	52
유리 및 요업제조	26	23	-	8	2	-	-	2	2	37
철강제조	27	8	-	9	-	-	-	2	-	19
금속제품 제조	28	16	-	18	-	3	1	17	-	55
기계제조	29	17	-	14	-	1	-	7	-	39
전기제품 제조	31	8	-	8	-	3	-	21	-	40
전자제품 제조	32	227	-	323	-	23	-	1,877	-	2,450
자동차 및 부품제조	34	11	-	14	-	-	-	16	-	41
선박,철도,항공기 제조	35	16	-	14	-	3	-	2	-	35
가구제조	36	10	-	-	5	-	-	9	10	34
금속가공원료 생산	37	-	-	-	-	-	-	-	-	0
종합건설	45	7	-	4	-	1	-	1	-	13
전문직 공사	46	23	-	-	-	-	-	2	-	25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	50	9	-	-	2	-	-	-	-	11
도매 및 상품중개	51	5	1	-	-	-	-	-	-	6
소매업	52	3	2	4	1	9	4	4	3	30
숙박 및 음식업	55	-	1	11	-	12	2	6	4	36
육상운송	60	-	-	-	-	-	-	-	-	0
통신	64	-	-	1	-	2	1	2	-	6
금융	65	-	-	3	-	1	-	1	-	5
보험 및 연금	66	-	-	-	-	-	-	21	-	2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67	-	-	-	-	-	-	-	-	0
부동산업	70	-	-	-	-	-	-	-	-	0
사업지원서비스	75	1	4	-	-	-	-	2	-	7
교육서비스업	80	7	2	7	-	9	2	29	-	56
보건업	85	3	1	-	-	6	-	7	-	17
사회복지사업	86	-	-	4	-	-	-	4	-	8
영화, 방송 및 공연	87	1	-	4	3	-	1	4	-	13
기타 오락, 문화	88	8	-	1	1	-	-	1	-	11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90	7	-	1	-	-	-	-	-	8
기타서비스	93	4	2	-	-	3	-	17	3	29
합 계		471	13	562	19	87	11	2,131	72	3,366

○ 표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채용예정인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 부문보다 제조업 부문의 채용예정규모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 부문에서 전자제품과 식품제조에 대한 채용예정 수요가 매우 높음
- 서비스 부문에서 교육서비스와 숙박 및 음식서비스 부문에 채용예정 규모가 높음
- 전반적으로 비상근보다 상근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상근은 신입의 채용비율 높음
- 성별에 관계없이 비상근 경력사원의 채용예정 계획은 매우 미약함
- 제조업에서 식품, 섬유, 펄프 및 제지, 출판 및 인쇄, 화학 및 화합물, 철강, 자동차 및 부품제조, 가구제조, 금속가공원료, 전문직 공사 업종은 여성 경력사원의 채용계획이 전무함
- 서비스업에서는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 육상운송, 보험 및 연금,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부동산, 사업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사업에서 여성 경력사원의 채용계획이 전무함

□ 고용직업분류코드에 의한 채용예정인원

○ 2005년 노동부 주관 충청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자료와의 비교

- 충북에서 222개 기업을 조사하여 48개 기업이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4> 고용직업분류코드에 의한 연령별 노동수요(2005)

고용직업분류		무관			20세 이상			30-40 세			50 세 이상			합계
코드 번호	업 종	외부 훈련	자체 훈련	훈련 무관	외부 훈련	자체 훈련	훈련 무관	외부 훈련	자체 훈련	훈련 무관	외부 훈련	자체 훈련	훈련 무관	
01	관리직				1	3	1		2				1	8
02	경영,회계, 사무			1	20	11	6		5	1			1	45
03	금융, 보험								4					4
04	교육 및 과학 연구				3	2		12	3					20
05	법률, 경찰, 소방 등						5							5
06	보건, 의료				40								1	41
07	사회복지												3	3
08	문화, 예술						4							4
09	운전 및 운송					3			5					8
10	영업 및 판매		14		3	8	1			3				29
11	경비 및 청소												1	1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등								2					2
13	음식서비스													0
141	건축, 토목, 측량													0
142	전통건물													0
143	철슨, 철골													0
144	석공, 조적													0
145	목공													0
146	건축관련 완성직													0
147	건설기계 운전												2	2
148	토목 및 채굴													0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								2					2
151	기계공학 기술					1								1
152	기계장치 설비 및 정비				2									2
153	운송장비 정비													0
154	자동차 정비				2								2	4
155	금형구조 제조 및 공작기계				1	1	1							3
156	냉난방설비													0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					3								3
158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													0
16	재료(금속, 유리 등)관련직													0
17	화학				4	17	1			1				23
18	섬유 및 의복													0
19	전기, 전자			2	57	44	36		5	16				160
20	정보통신				11	5	5		1					22
21	식품가공		1			25			15				12	53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등					16		1		1				18
23	농립어업									1				1
99	군인													
		0	15	3	144	139	60	13	44	23	0	0	23	464

○ 코드별로 전기·전자가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고, 식품가공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분류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6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

○ 연령대별로 20대의 충원예정인원이 343명으로 전체의 73.92%로 매우 높음

- 20대 연령의 청년층에서도 채용예정분야는 전체(모든 연령대 포함)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3. 직종별 노동수요 실태

<표 3-45> 직종별 채용예정인원(2006년)

구 분		연구개발직				기술직				기능직			
		남		여		남		여		남		여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제조업	평균인원	6.5	2.3	1.0	1.5	150.9	1.8	-	-	2.4	10.8	4.7	131.6
	응답기업수	15	4	1	2	10	11	-	-	25	36	3	14
서비스업	평균인원	2.0	-	-	3.5	1.3	1.5	3.7	1.2	3.6	1.7	400.7	1.5
	응답기업수	3	-	-	2	10	2	4	5	5	3	3	4
합계	평균인원	5.8	2.3	1.0	2.5	43.8	1.8	3.7	1.2	2.6	9.9	202.7	102.7
	응답기업수	18	4	4	4	35	13	4	5	30	39	6	18

구 분		단순노무직				사무직				영업직			
		남		여		남		여		남		여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제조업	평균인원	116.3	2.7	8.0	9.4	6.3	3.5	4.3	1.2	2.2	2.0	1.0	2.0
	응답기업수	12	28	4	23	19	14	4	14	20	3	1	1
서비스업	평균인원	1.9	1.0	2.8	3.3	1.2	1.5	1.8	1.5	1.6	1.6	2.0	2.9
	응답기업수	11	5	4	6	5	6	6	14	7	7	12	15
합계	평균인원	54.3	2.4	5.4	8.1	5.3	2.9	2.6	1.4	1.7	1.7	1.9	2.8
	응답기업수	24	33	8	29	24	20	11	28	10	10	13	16

○ 각 직종별로 채용예정인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연구개발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의 경우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경력 남성사원의 채용계획이 높음

- 기능직의 경우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경력 여사원에 대한 채용계획 높음
- 사무직과 영업직의 경우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제조업은 경력 남성사원을, 서비스업은 신규 여사원의 채용계획 높음

4.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 직종별 · 학력별 평균 희망 임금수준

<표 3-46> 직종별 · 학력별 평균 임금수준

(단위 : 만원)

구 분		학력별 평균임금											
		무관		고졸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박사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연구개발직	경력	1965	1	3000	9	3563	15	3462	34	5876	13	8520	10
	신입	-	-	1581	8	1954	18	2060	35	2661	13	3112	8
기술직	경력	2022	27	2335	38	2988	41	3184	40	2885	7	2916	3
	신입	1676	17	2140	27	2240	40	2380	39	2533	5	2648	3
기능직	경력	1769	36	1860	62	1975	38	2064	25	2114	4	2125	2
	신입	1515	32	1714	75	1729	38	1800	26	1818	3	1966	3
단순노무직	경력	1559	54	1662	34	1773	20	1853	16	1980	4	2025	5
	신입	1503	58	1340	40	1537	21	1850	19	2000	4	2037	4
사무직	경력	1706	26	1924	67	2156	62	2500	62	2800	6	3015	3
	신입	1483	21	1616	73	1914	68	2179	74	2366	6	2367	3
영업직	경력	1779	28	2000	36	2339	23	2620	31	2824	5	4097	1
	신입	1417	22	2133	31	2200	27	2330	31	2425	6	2566	4

○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

- 연구개발직, 영업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직은 4년제 대학에서 박사, 기술직은 고졸에서 4년제 대학, 기능직은 고졸 및 전문대학을 선호함
- 단순노무직은 무관에서 고졸, 사무직은 고졸에서 4년제 대학, 영업직은 고졸에서 4년제 대학 수준을 주로 선호하고 있음

- 청년층이 선호하는 임금수준이 2,000(만원) 이하기 80% 이하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노동 수급자간 임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충북기업이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

<표 3-47> 충북기업의 근로조건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청년층 선호수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주 5일제 근무	63	8.1	86	13.2	149	10.4	588	31.7
② 4대 보험 지원	170	21.9	92	14.1	262	18.3	168	9.1
③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52	6.7	21	3.2	73	5.1	292	15.8
④ 노동조합 활동 보장	38	4.9	14	2.1	52	3.6	34	1.8
⑤ 주택자금 지원	20	2.6	8	1.2	28	2.0	77	4.2
⑥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지급	148	19.1	112	17.1	262	18.3	161	8.7
⑦ 합리적 업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68	8.8	79	12.1	147	10.3	202	10.9
⑧ 사무실, 작업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	115	14.8	149	22.8	264	18.4	235	12.7
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95	12.2	70	10.7	165	11.5	91	4.9
⑩ 기타	8	1.0	23	3.5	31	2.2	5	0.3
합 계	777	100.0	654	100.0	1,433	100.0	1,853	100.0

○ 사업체는 사무실, 작업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과 4대 보험 지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등이 18%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은 4대보험의 지원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서비스업은 사무실, 작업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청년층이 주 5일제 근무, 학자금 지원, 사무실, 작업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 등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 우수한 노동의 유인요인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상호간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청년층 노동실태분석의 시사점

□ 청년실업의 노동공급 측면

○ 전반적으로 향후 진로는 창업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80% 정도가 진학을 희망하여 취업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실업고의 진학중심 성향에 대한 실업고 교육시스템 개편 또는 취업전환 방안 필요

○ 취업 시 보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면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적성과 흥미라는 상반된 의식이 있고,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

- 현재의 충북지역 보수수준과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수수준이 낮다면 낮은 원인과 높다면 높은 수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취업을 대비하는데 고등학생, 전문대생과 달리 4년제 학생은 어학공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 전문대학생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준비 비중이 가장 높음

- 따라서 4년제 대학생에 대한 어학교육 강화,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중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년층은 평소 취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수집 등의 대비가 미약하고, 학교수업이 취업과 높은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의 취업연계 교육과정의 강화가 필요하고 취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

○ 취업정보 수집통로는 취업정보는 학력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고, 다음으로 선배 및 친구로 나타나 청년층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보여줌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충북지역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충북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나 4년제 고학력자는 충북을 이탈하여 취업하고자하는 성향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충북권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수익 개념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어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충북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지리적 통근의 용이성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하여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의 우월함보다는 충북이라는 지리적 편리함을 선호하고 있음

○ 충북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유가 2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취업선택 요령에 이 점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함

○ 특히 충북에는 자신의 전공기술 등을 발휘할 취업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충북 인적자원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충북지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은 일자리 수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충북지역의 일자리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취업희망직종은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3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 관계없이 사무직을 선호함

-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업계임을 고려할 때 공업계에 대한 공업계 취업 유도 또는 서비스업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 희망 근로조건은 학력에 관계없이 주 5일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고려 필요

○ 청년층 실업자가 실직하는 사유 중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의 비중이 높음

- 청년층의 자질 강화로 취업 초기 직장 퇴출 방지하는 업무처리능력 강화 프로그램 필요함

○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유도가 필요함

- 기존의 훈련기관을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인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
- 또한 장기보다는 단기 집중과정의 직업훈련을 선호하여 6개월 초과하지 않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청년실업층은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연계에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

- 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방식 개선과, 훈련기관의 실업자에 대한 홍보 필요

□ 청년실업의 노동수요측면

○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채용예정규모가 많고, 전반적으로 경력직보다 신입사원의 채용이 많고 연령대별로 20대의 충원예정인원이 전체의 73.92%로 높아 청년층 신규 취업가능성 희망적임

○ 여성신입사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 여성의 취업기회확대도 희망적임

○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이 72% 정도 되나, 연구개발직은 29.33%에 불과하고, 특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이 훨씬 높음

- 충북지역의 고급인력 양성은 크게 미달되고 있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구인의 매체로는 대중 매체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이 선호하는 인터넷을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취업 연계 활성화 관리가 필요함

○ 인력채용시 업종에 관계없이 인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음

-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채용 시에 면접의 반영비율이 50%를 상회하여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 선호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충북지역 인력의 질적 향상을 청년실업의 선결과제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가 필요함
- 취업을 위한 교육내용의 재편성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직종별 채용예정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의 경우 업체당 평균 채용인원은 경력 남성사원의 채용계획이, 기능직의 경우에는 경력 여사원에 대한 채용계획 높고, 제조업은 경력 남성사원을, 서비스업은 신규 여사원의 채용계획 높음

○ 또한 보수수준은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연구개발직, 영업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나타남
- 각 직종별로 충북이 양성하는 인력에 대한 불균형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함

○ 충북기업이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은 사업체는 사무실, 작업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과 4대 보험 지원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이 근무환경의 쾌적함 등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노동의 유인요인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상호간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청년실업 요인 분석

제4장 청년실업 요인 분석

○ 상대적으로 높은 충북 청년실업

- 충북의 중년실업률(30~59세)과 노년실업률(60세 이상)은 전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지만 청년실업(15~29세)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2002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높게 나타남
- 또한 청년실업률은 충북의 경우 7개 광역시 실업율에 비하여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8개 도지역 실업율에 비하여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 연령별 청년실업률 변화

구 분	15 - 29세				30 - 59세		60세 이상		전체	
	전국	충북	광역시	도지역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2000	8.1	7.2	9.6	7.3	3.5	2.9	1.5	0.0	4.4	3.6
2001	7.9	8.1	9.1	7.1	3.0	2.4	1.2	1.1	4.0	3.5
2002	7.0	7.8	7.7	6.5	2.4	1.5	1.1	0.0	3.3	2.6
2003	8.0	7.3	8.8	6.9	2.5	2.4	1.0	0.6	3.6	3.1
2004	8.3	8.2	8.9	7.5	2.6	1.7	1.2	0.3	3.7	2.7
2005	8.0	6.2	8.8	6.7	2.8	1.6	1.3	0.4	3.7	2.2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연령별 실업률, 각 년도.
주 : 광역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실업율이며, 도지역은 충북을 제외한 8개도 실업율.

○ 청년실업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 2005년 충북전체의 실업률은 2.2%인 반면 청년실업은 6.2%로 3배정도 높게 나타남으로서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구인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인적자원배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청년실업문제는 노동시장 전체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년실업이 단순히 기업의 노동수요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청년실업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제1절 노동수요 측면

1. 경기적 영향

○ 노동수요는 상품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수요이므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청년실업은 무엇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 경기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GRDP와 실업률의 상관계수를 측정 하면 전체 실업율은 충북 및 전국의 경우 각각 -0.72, -0.77로 모두 부(-)의 계수 값으로 측정되어 경기가 좋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GRDP와 청년실업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전국적으로는 0.09의 값을 가지며 충북의 경우에는 0.36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서 GRDP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상관계수가 충북의 경우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충북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함
- 따라서 충북의 경우 신규 청년층의 고용창출 없는 성장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실업률이 GRDP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충북의 경우 회귀계수가 -0.11, 전국은 -0.17로 나타나 충북지역총생산이 10%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1.1%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7%감소보다 낮음[3].

3) 1989~2004년 기간 동안 전국 및 충북지역의 실업률과 GRDP 증가율의 회귀분석
전국실업율 = 4.399 -0.178전국 GRDP**
충북실업율 = 3.162 -0.117충북 GRDP** **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표 4-2> 실업률과 GRDP와의 상관관계

(단위 : %, 10억원)

구 분	전국 실업률		충북 실업률		GRDP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전국	충북	비중
2000	4.4	8.1	3.6	7.2	577,971	19,521	3.38
2001	4.0	7.9	3.5	8.1	600,932	19,531	3.25
2002	3.3	7.0	2.6	7.8	647,259	21,043	3.25
2003	3.6	8.0	3.1	7.3	668,502	21,818	3.26
2004	3.7	8.3	2.7	8.2	702,806	23,552	3.35
상관계수	-0.72	0.09	-0.77	0.36	-		-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연령별 실업률,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
주 : GRDP는 2000년 기준가격.

○ 고용흡수력을 살펴보면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에 따라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감소

- 제조업의 1인당 유형고정자산은 광공업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91년 3,100만원에서 2001년 1억 100만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2.9%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자본집약도가 높음
- 이에 따라 취업계수는 1980년도의 10.6명에서, 2010년에는 2.4명(전망치)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흡수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표 4-3> 취업계수 변화 및 전망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p	2010p
전산업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제조업	10.31	7.20	5.91	3.75	2.28	1.72	1.27

자료 : KDI,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2002.
주 : 취업계수는 GDP 10억원 당 취업자, p는 전망치.

○ 생산증대로 인한 고용유발 증가의 선순환고리가 점진적으로 약화 됨

- 과거에는 산출증대를 통하여 고용이 유발 되었지만 정보화시대로 전환되면서 생산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등으로 고용창출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
-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전산업기준으

로 1990년 26.8에서 2000년 12.4로 절반 이하로 감소

-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발계수의 하락이 더욱 커 1990년 28.1에서 2000년 9.7까지 1/3수준으로 하락함

<표 4-4> 고용유발계수의 변화

(단위 : 명/ 10억원)

	1990	1995	2000
전산업	**26.8**	**18.1**	**12.4**
제조업	**28.1**	**15.9**	**9.7**
서비스업	**127.7**	**21.6**	**15.4**
농림수산품	26.8	13.9	7.7
광산품	42.5	19.1	9.9
음식료품	34.4	18.3	9.5
섬유 및 가죽제품	70.3	32.8	17.0
목재 및 종이제품	40.4	18.7	11.2
인쇄, 출판 및 복제	-	30.6	19.2
석유 및 석탄제품	10.0	3.2	1.1
화학제품	33.8	17.2	8.9
비금속광물제품	45.4	22.7	11.9
제1차금속	25.4	12.5	6.2
금속제품	44.9	24.0	14.4
일반기계	41.1	22.1	13.1
전기,전자기기	40.0	18.5	8.1
정밀기기	50.3	27.6	15.6
수송장비	37.1	19.4	1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64.6	32.4	16.5
전력가스 및 수도	17.4	10.4	5.0
건설	45.7	27.3	17.9
도소매	38.4	25.5	20.2
음식점 및 숙박	-	86.7	19.8
운수 및 보관	45.1	23.0	13.9
통신 및 방송	23.7	15.7	7.6
금융 및 보험	45.8	33.2	14.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5	15.0	8.5
공공행정 및 국방	59.6	33.9	18.7
교육 및 보건	63.5	30.3	2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95.8	38.6	20.7
기타	50.6	29.8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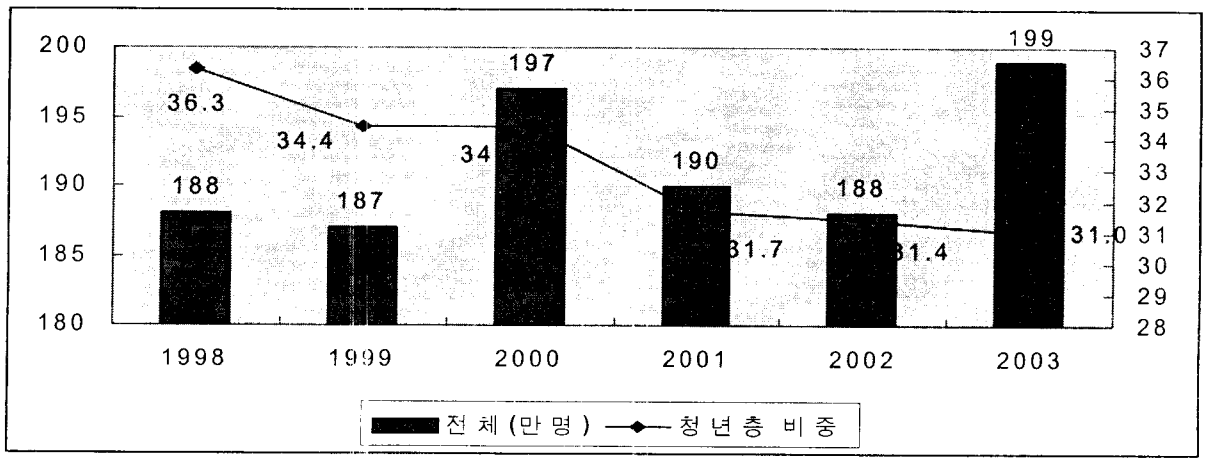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년도.

주 : 최종수요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수.

○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감소

-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 됨에 따라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총고용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6.3%에서 2003년 3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림 4-1> 300인 이상 사업체의 15~29세 노동자 비중



자료 : 고용보험 DB

○ 마찰적 실업의 존재가능성 높음

- 장기적 경기침체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수가 감소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오게 됨으로서 실업이 발생 함
-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0년 39.5%에서 2005년 33.6%로 감소하면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게 됨
-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이 2000년 52.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IMF이전인 1995년 41.9%에 비하여는 여전히 높은 47.9%로서 고용 불안에 의한 마찰적 실업의 존재 가능성이 높음

<표 4-5> 종사상 지위별 취업 구성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
1990	18,085	7,135(39.5)	10,950(60.8)	5,938(54.2)	5,012(45.8)
1995	20,414	7,515(36.8)	12,899(63.2)	7,499(58.1)	5,400(41.9)
2000	21,156	7,795(36.8)	13,360(63.1)	6,395(47.9)	6,965(52.1)
2001	21,572	7,913(36.7)	13,659(63.3)	6,714(49.2)	6,944(50.8)
2002	22,169	7,988(36.0)	14,181(64.0)	6,862(48.4)	7,319(51.6)
2003	22,139	7,736(34.9)	14,402(65.1)	7,269(50.5)	7,134(49.5)
2004	22,557	7,663(34.0)	14,894(66.0)	7,625(51.2)	7,270(48.8)
2005	22,856	7,671(33.6)	15,185(66.4)	7,917(52.1)	7,268(4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년도.
주 : ( )는 구성비.

2. 산업구조 변화

○ 산업이 IT 등으로 첨단화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되면서 실업이 더욱 심화됨

<표 4-6> 산업별 생산.고용 연평균 증가율(1994~2002년)

	제조업	전자	자동차	화학	기계	식품	섬유
산업생산증가율	8.3	27.8	5.8	4.9	2.1	1.6	-4.7
고용증가율	-0.4	3.4	1.1	-1.5	-0.4	-0.7	-3.3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 전자산업의 경우 지난 1994년~2002년간 생산이 연평균 27.8% 증가 했지만, 고용은 3.4%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증가율은 8.3%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0.4%에 그치고 있음

○ 충북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함

- 지역총생산 비중이 높은 3대 산업을 보면 1985년도에는 농림어업>제조업>공공행정서비스업 산업구조에서 1990년 이후에는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산업구조로 변화되었음
- 1순위인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 27.6%에서 2000년 36.2%로 더욱 높아진 반면 2순위 3순위인제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상위 3개 산업 모두 고용유발계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1순위인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985년 72.1에서 2000년 11.7로 1/7 감소함으로서 실업 가능성이 높아짐

<표 4-7>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유발계수 변화

(단위 : 명/10억원,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1985	GRDP 비중	농림어업(22.1)	제조업(18.7)	공공행정(12.5)
	고용유발계수	45.6	72.1	99.2
1990	GRDP 비중	제조업(27.6)	건설업(11.9)	농림어업(11.0)
	고용유발계수	41.3	45.6	26.8
1995	GRDP 비중	제조업(30.1)	건설업(10.9)	농림어업(8.2)
	고용유발계수	21.3	27.3	13.8
2000	GRDP 비중	제조업(36.2)	건설업(8.3)	농림어업(7.8)
	고용유발계수	11.7	17.9	7.7

자료1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
자료2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주 : ( )는 해당 산업의 GRDP 구성비.

○ 2000년 이후 충북 산업 고도화에 따라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의 비중 감소가 청년실업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용유발 계수가 높은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업(22.6), 기타서비스업(20.7) 도소매업(20.2), 숙박 음식업(19.8)의 경우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그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또한 고용유발계수가 11.7인 제조업의 경우 충북의 경우 전국에 비하여 그 구성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높게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하여 고용유발이 낮게 되는 원인임

<표 4-8>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및 GRDP 비중 변화

(단위 : 명/10억원, %)

구 분	고용유발계수 (2000년)	전국					충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농림어업	7.7	4.1	4.0	3.6	3.3	3.3	7.8	7.2	6.8	6.3	5.6
광업	9.9	0.3	0.2	0.2	0.2	0.2	0.6	0.6	0.4	0.4	0.5
제조업	9.7	25.9	25.3	25.4	25.7	27.3	36.2	35.8	37.8	38.0	41.5
전, 가 및 수도업	14.8	2.2	2.3	2.4	2.4	2.5	1.8	1.9	1.7	1.9	1.9
건설업	17.9	7.6	7.7	7.3	7.7	7.5	8.3	8.4	7.2	7.4	6.6
도소매업	20.2	6.9	7.1	7.2	6.6	6.2	3.3	3.6	3.7	3.5	3.2
숙박, 음식점업	19.8	2.5	2.6	2.6	2.5	2.3	2.3	2.0	2.2	2.0	1.7
운수업	13.9	4.3	4.2	3.9	3.9	4.0	2.9	3.2	2.7	2.8	2.7
통신업	7.6	2.0	2.6	2.8	2.9	3.0	1.3	1.9	2.0	2.2	2.1
금융보험업	14.6	6.1	6.2	7.1	7.1	6.6	3.3	3.2	3.9	3.9	3.5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8.5	12.0	12.1	11.8	11.7	11.3	7.4	7.7	7.2	7.1	6.6
공공,국방,사회보장	18.7	5.2	5.0	4.9	4.9	4.8	7.0	7.0	6.8	6.7	6.4
교육 서비스업	22.6	4.6	4.7	4.5	4.6	4.6	4.5	4.7	4.6	4.8	4.5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22.6	2.1	1.7	1.7	1.8	1.8	1.9	1.4	1.4	1.4	1.3
기타서비스업	20.7.	3.5	3.5	3.4	3.3	3.2	2.3	2.3	2.2	2.3	2.1

자료1 :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
자료2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GRDP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제조업들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서 청년실업 증가요인이 됨

- 제조업의 평균 고용유발 계수가 11.7이지만 제조업을 세분화해서 보면 인쇄 출판 복제(19.2), 섬유 및 가죽 제품(17.0), 가구 기타제조업(16.5) 순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높음
-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제조업들의 출하액을 보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고 있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이러한 산업의 비중은 더욱 낮아짐
-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전기 및 전자기기의 비중이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표 4-9> 제조업 업종별 취업유발 계수 및 출하액 비중

(단위 : 명/10억원, %)

구 분	고용유발계수	전 국					충 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음식료품	9.5	6.6	6.8	6.8	6.5	6.1	13.3	15.6	14.9	14.4	13.1
섬유 및 가죽제품	17.0	7.3	7.2	6.7	5.9	5.0	5.6	5.9	5.0	4.4	3.5
목재 종이제품	11.2	2.9	2.9	2.8	2.7	2.4	5.9	6.4	5.7	5.8	4.3
인쇄 출판 복제	19.2	1.7	1.8	1.9	1.8	1.5	0.4	0.4	0.5	0.4	0.2
석유 및 석탄	1.1	7.1	6.8	5.6	5.5	6.0	0.0	0.0	0.0	0.0	0.1
화학제품	8.9	13.7	13.9	14.0	14.0	13.8	19.9	22.6	22.6	22.0	16.7
비금속광물제품	11.9	3.0	3.2	3.3	3.3	3.0	8.1	8.7	8.5	8.8	7.3
제1차금속제품	6.2	7.9	7.7	7.9	8.3	9.6	2.8	2.9	2.2	2.5	2.5
금속제품	14.4	3.6	3.5	3.7	3.9	4.3	3.5	3.9	3.9	4.0	4.4
일반기계	13.1	7.5	7.6	7.8	8.2	8.3	4.5	4.5	4.2	4.3	4.6
전기및전자기기	8.1	22.5	20.8	21.5	22.1	22.3	29.2	21.9	25.8	26.1	36.2
정밀기기	15.6	0.9	0.9	0.8	0.8	0.9	1.2	1.5	1.3	1.4	3.0
수송장비	11.6	12.9	14.6	15.0	14.8	14.8	2.6	3.4	3.0	3.5	2.8
가구 기타제조업	16.5	1.6	1.6	1.7	1.6	1.6	1.5	1.5	1.3	1.3	1.4

자료1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자료2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 충북지역 제조업 상위 산업들의 고용유발계수의 하락이 높음

- 출하액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4개 산업의 순위는 전기 및 전자기기>화학제품>음식료품>비금속광물 순을 보이고 있음
- 모두가 72% 이상의 감소를 보임
-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4개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4-10> 충북 제조업 소분류별 고용유발계수 변화

(단위 : 명/10억원, %)

구 분	비중 1순위	비중 2순위	비중 3순위	비중 4순위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1985	-	39.2	51.4	75.3
1990	40.0	33.8	34.4	45.4
1995	18.5	17.2	18.3	22.7
2000	8.1	8.9	9.5	11.9
증감율	-79.8	-73.9	-72.4	-73.8

자료1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9-2004.
자료2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주1 : 산업 순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충북지역 산업별 출하액 비중이 높은 순임.
주2 : 증감율은 1990년 대비 2000년의 고용유발계수의 증감율.

○ 산업 중심축이 섬유, 건설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에서 전기·전자, 화학 등과 같은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산업으로 옮겨 감에 따라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한 요인이 됨

- 경제구조가 고도화하고, 자동화 등 인력절감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 보급되어 고용창출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게 됨
- 고용창출효과가 큰 섬유, 건설 등의 경우 사양화 내지 성숙단계에 있으며, 반도체 같은 고성장 업종의 경우 고용창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임
- 따라서 향후 IT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청년실업의 획기적인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Global화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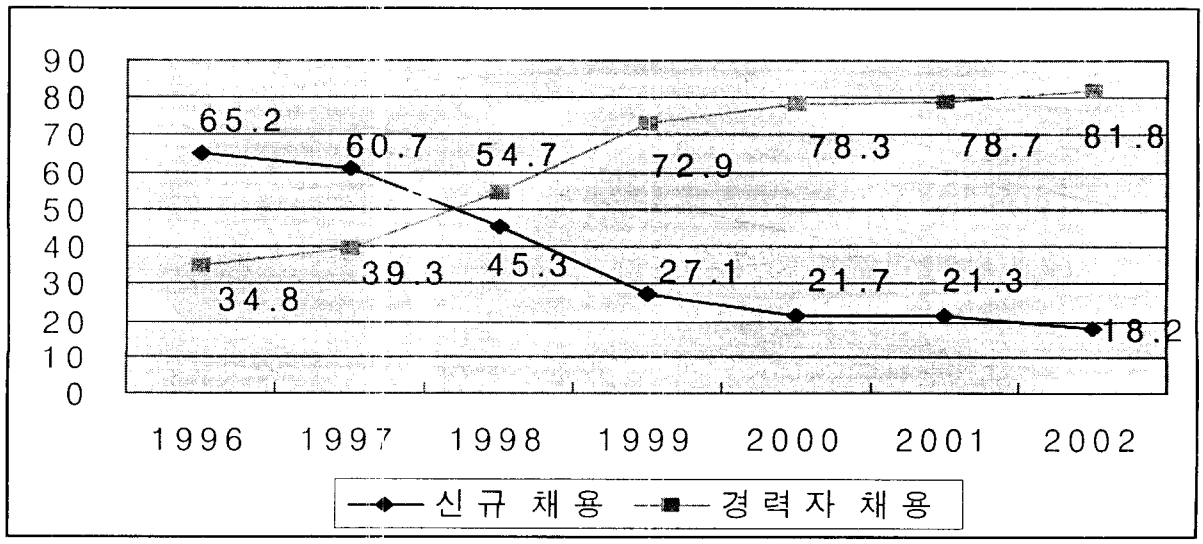
-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서 노동집약형 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국내고용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음
- 해외직접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은 국내 청년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발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3. 채용관행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함에 따라 청년층 채용경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 중시형 채용 경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 됨

- 기업들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로 선발함
- 특히,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대졸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주요기업들에서 경력직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나타남
- 1997년 채용된 청년층 가운데 경력자가 39.3%, 신규채용자가 65.2%였으나, 2002년에는 각각 18.2%, 81.8%로 역전됨

<그림 4-2> 신규 및 경력 채용 추이



주 : 30대 대기업, 공기업 및 금융부문

○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관행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인력을 채용하여 즉시 활용하려는 단기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신규인력에 대한 취업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함으로서 청년인력을 유휴화 시키지 아니하고 생산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 충북의 경우 본연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남성의 경우 경력자에 대한 선호가 52%로 신규채용 48%로 높지만, 여성의 경우 경력자 희망은 30%로 신규채용 70%보다 낮게 나타남

4. 중소기업의 청년층 인력 유인 취약

○ 중소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지만 청년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대기업보다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추세로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점차 하락 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음
- 현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청년층 실업 증가의 중요한 원인임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67%로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여러 근무조건 측면에서 열악하여 이직률이 대기업의 2.4배, 산업재해율이 2.8배로 나타남
-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층의 51.8%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5.3%가 임금, 근무환경, 복지 등 근로조건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4)]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충북의 취업예비자의 근로조건 선호순위는 주 5일근무, 학자금 지원, 사무실 등 근무 환경의 쾌적함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북기업들이 제공하는 근로조건 우선순위는 4대보험, 초과수당지급, 작업환경 순으로 나타나 상호간 근로조건이 불일치함
- 따라서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서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

4) 중앙고용정보원, 「2003 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

<표 4-11> 중소기업 근로조건

구 분	임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만원	196.8시간	22만원	1.2%	0.3%
중소기업	177만원	200.4시간	14만원	2.8%	0.9%
대기업대비	67%	102%	64%	2.4배	2.8배

자료 :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년 9월, 정부부처 합동.

제2절 공급측면

1. 대학교의 고학력자 양산

○ 고등교육 진학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고학력자 양산은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표 4-12> 대학 졸업자수 및 대학진학률

(단위 : 명,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졸자(전문대포함)수		478,590	511,984	542,196	584,340	603,282	633,730	627,270
대학 진학률	일반계고	83.9	84.5	83.9	85.3	87.0	90.2	89.8
	실업계고	35.7	38.5	42.0	44.9	49.8	57.6	62.3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대학졸업자의 수는 1998년 47만 명에서 2004년 62만 명까지 증가 신규노동시장 진입자 중 전문대졸이상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진학률이 89.8%에 이름
- 또한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62.3%로 진학자수가 취업자 수를 앞지르게 됨

○ 충북지역 실업계고의 진학 희망율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 77.78%로 2004년 전국실업계 진학률 평균 62.3%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고학력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한다면 청년실업 중 고졸이하의 실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예상 됨

○ 1995년 이후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대학진학률을 높인 정부의 정책으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증가됨

- 초졸, 중졸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진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 교육정도를 가진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음

<표 4-13> 교육정도별 취업자 비중 추세

(단위 : 천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총 취업자	21,214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8	22,557	22,856
	초졸이하	19.3	17.9	17.6	17.0	16.3	15.6	14.4	13.7	13.3
	중졸	16.6	14.4	14.5	14.3	13.7	13.4	12.1	11.9	11.5
	고졸	43.6	43.8	43.8	44.1	44.4	44.4	43.2	43.2	42.8
	대졸이상	20.6	23.8	24.1	24.6	25.7	26.6	30.2	31.2	32.4
충북	총 취업자	666	646	648	665	667	682	667	676	682
	초졸이하	30.8	29.4	28.7	26.9	25.0	24.2	20.9	20.2	20.4
	중졸	16.8	14.4	14.2	13.7	13.5	13.3	14.9	14.7	13.4
	고졸	36.8	39.3	39.8	42.3	42.6	42.7	41.9	42.0	41.2
	대졸이상	15.5	16.9	17.4	17.1	19.0	19.6	22.4	23.1	2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충북의 경우 초졸 중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평균에 비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졸과 대졸이상의 고학력 고급인력의 비중이 1997년 52.3%에서 2005년 66.1%로 높아짐

- 이는 고급직무를 원하는 고학력 구직자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청년실업 증가의 원인이 됨

○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 전체실업자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의 실업자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졸이하 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대졸 청년실업자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실업자			청년 실업자		
	계	대졸이상	구성비	계	대졸이상	구성비
2000	979	230	23.5	430	129	30.0
2001	899	233	25.9	413	133	32.2
2002	752	224	29.8	361	130	36.0
2003	817	253	31.0	400.7	149	37.2
2004	859	251	29.3	411.7	152	36.9
2005	886	261	29.4	386.6	147	3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각년도.

- 청년실업자 중에서 대학이상 학력의 실업자 비중은 2000년 30%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청년실업의 38.3%가 대학이상의 고학력자로 나타남
- 이러한 고학력자의 실업상태는 그 자체로 엄청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심각함

2.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직업관이 근로환경이 우수하며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게 됨

-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반면 편안하고 깨끗하며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하게 됨
- 이것은 제조업 부문의 인력수요가 감소되어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으나, 청년층들이 서비스업을 선호한 결과로 나타남

○ 지방 고용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온 중소제조업체의 월평균 종업원수는 1993년 185만명에서 2000년 178만명으로 감소한 후 2004년 196만명으로 증가함

- 그러나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2004년 19.4명으로 1997년 21.3명에 비하여 감소함

<표 4-15>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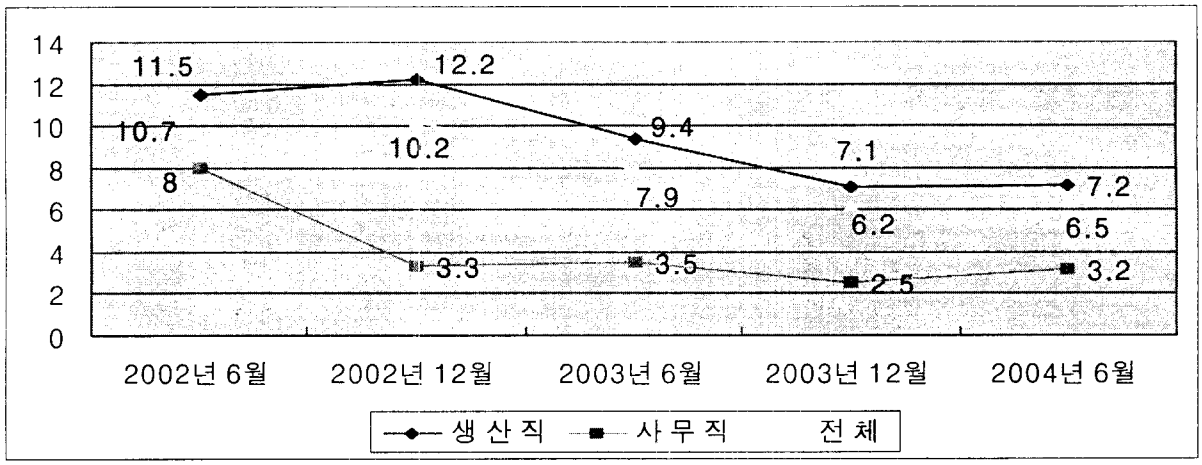
구 분	1993	1997	2000	2003	2004
월평균 상시 종업원 수	1,852,667	1,831,517	1,782,909	1,930,045	1,960,000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	-	21.3	19.9	18.6	19.4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년호.

○ 청년층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상황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1년 1.54%(7만2.6천명)에서 2003년 2.66%(13만3천명)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부족률 0.55%(8천명)에 비해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5)]

<그림 4-3>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 추이



자료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제조업 인력현황조사 결과」, 2004.

5)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3.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을 보면 2002년 상반기까지 10%를 상회하던 인력부족현상이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와 경기침체로 다소 완화됨
-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2002년 하반기에 인력부족률이 3.3%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데 반해 생산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12.2%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사무직의 2배에 해당됨
- 2005년 중소제조업 전체의 부족인원은 99천명이며, 인력부족률은 4.35%로 나타남
-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전문가가 5.74%로 가장 높으며, 기능직이 5.58%, 단순노무직 4.62%, 기술직 및 준전문가 4.53% 등으로 전문가와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높음
- 즉, 중소제조업 내에서도 사무직과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 보다는 '편하고 쉬운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실업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됨

<표 4-16> 직종별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구 분	사 무 관리직	전문가	생 산 직				서비스 종사자	판 매 관리직	계
			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 순 노무직	소 계			
현재인원	448,324	70,450	261,950	601,902	666,714	1,530,566	32,624	102,475	2,184,439
부족인원	10,425	4,294	12,442	35,555	32,289	80,286	875	3,414	99,294
부족률	2.27	5.74	4.53	5.58	4.62	4.98	2.61	3.22	4.35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년호.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

○ 충북의 경우 본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의 사무직에 대한 선호가 34.89%, 기술직 27.94%순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대한 취업희망은 11.06% 1.42% 낮게 나타남으로서 직종별 수급 불일치가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한 원인이 됨

-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력충원시 겪는 애로요인은 임금조건 불일치(31.5%),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26.5%)과 작업환경 열악(12.6%)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근무를 기피하는 근로의식으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처하게 됨

<표 4-17> 중소기업 부족인력 충원시 애로요인

구 분	임금조건 불일치	중소기업 근무기피	작업환경 열악	회사소재지 등 지역여건	인력 정보부족	국내 해당 인력 없음	기 타
비 율(%)	31.5	26.5	12.6	12.5	8.6	4.8	3.5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년호.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부족인원).

○ 충북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이 높음

-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충북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충북의 산업별 고용탄력성의 순위를 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4.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4)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충북지역 제조업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액뿐만 아니라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각각 94.8%, 95.4%로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충북지역 고용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함

<표 4-18> 충북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출하액 비중	93.2	91.9	91.5	92.3	94.8
종사자 비중	94.9	93.7	94.5	95.0	95.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표 4-19> 중소기업 산업별 고용탄력성

구 분	전국				충북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중소 제조업	0.3	0.3	0.2	0.1	-0.3	0.4	0.4	0.1
음·식료품 제조업	0.5	0.5	0.6	-0.2	0.6	2.4	-0.1	0.3
담배 제조업	0.1	0.5	0.7	0.8	-	-	-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5.2	-2.1	1.2	3.0	0.9	0.4	3.9	1.5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	-0.2	1.7	2.4	8.2	1.2	-1.3	0.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	0.8	1.2	8.4	0.6	1.0	0.7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2	0.3	-0.0	-0.2	-0.9	-6.0	1.0	14.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0.4	-0.7	-1.7	3.2	-0.1	0.1	0.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8	0.3	-0.2	1.0	2.6	0.4	0.8	0.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2	-1.0	0.3	-0.2	0.0	0.0	-	-0.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4	0.1	0.3	0.1	0.6	-0.1	2.2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	0.4	0.7	0.2	0.5	0.2	0.7	4.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	0.2	0.3	-0.2	0.9	-0.4	0.6	-0.3
제 1차 금속산업	0.4	0.4	0.4	0.3	-0.9	1.1	0.7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8	0.4	0.5	0.3	-3.2	0.4	0.8	0.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	0.3	0.5	0.2	1.9	0.3	0.1	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2	1.3	-0.8	0.6	0.1	0.7	-1.1	0.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4	0.4	0.4	-0.2	12.4	0.7	1.7	-0.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9	0.4	1.0	0.3	1.1	0.5	-0.0	-0.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6	1.2	0.1	0.3	0.1	0.6	0.7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	0.2	1.0	0.5	0.8	0.6	0.5	-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0.0	0.5	0.5	0.4	1.1	0.9	3.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3	0.2	-0.5	-0.3	0.6	0.9	-8.7	0.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6.3	0.3	-0.2	0.1	0.3	0.9	0.7	0.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주 : 고용탄력성 = 종업원수 변화율/출하액 변화율

3. 대학 교과과정 운영의 능동적 대응 부족

○ 산업수요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적 조정 부족으로 대졸 취업자의 비전공분야 취업 비중이 높음

- 대졸취업자의 30%이상이 비전공분야에 취업하고 이러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는 산업수

요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 조정을 통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함

- 또한 이러한 현상은 취업경쟁에서 탈락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하향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대졸취업자의 분야별 취업자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업자	85,805	90,147	104,371	119,239	129,414	133,122	132,199
전공분야	56,438	57,319	69,398	80,251	85,503	91,364	91,877
다른분야	29,337	32,828	34,973	38,988	43,911	41,758	40,322
비전공분야 취업률	34.2	36.4	33.5	32.7	33.9	31.4	30.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제5장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도출 하고자 함

- 청년실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청년실업의 발생요인을 <표4-21>에 정리되어 있음

<표 4-21> 충북 청년실업의 발생요인

외생적 요인	내생적 요인
○ 경기적 영향 -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 -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비임금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화 되는 과정에서 마찰적 실업 증가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 ○ 산업구조 고도화 -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IT업종 등 자본집약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 노동집약 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 청년인력 고용창출의 감소 ○ 채용관행변화 - 경력자를 채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 유인 존재 - 고용관행이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호 - 남성에 대한 경력자 선호가 높음 ○ 중소기업의 청년층 인력 유인 취약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중소기업은 인력난 존재 ○ 인력의 탄력적 공급 부족 -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실업 증가 - 고학력화로 인한 높은 보수와 안정된 일자리 선호 - 노동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노동공급 조정 미약	○ 취업준비생의 철저한 취업준비 부족 - 8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심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의 비중이 낮음 - 취업 애로요인 1순위는 외국어 능력 부족으로 외국어의 중요성이 높음 - 학교 전공공부와 취업공부의 연계성부족 ○충북 청년층의 취업관 - 충북지역 일자리 부족 - 충북 이탈 성향이 높음 - 직종별로는 사무직, 업종별로는서비스업에 대한 선호가 높음(기업은 기능직에 대한 채용비율이 높아 직종불일치 발생) ○ 충북기업 채용 관행 - 충북기업들의 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용은 기능직 중심 - 취업 정보 획득 경로의 불일치(수요측: 신문방송매체, 공급측: 인터넷) - 채용 기준에 대한 불일치(수요측: 인성, 공급측: 어학실력) -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수요측: 노동력의 질, 공급측: 절대적 일자리 부족) ○ 근로조건 불일치 - 기업은 근무환경 개선의 높은 가중치를 두지만 청년층은 주5일근무, 학자금지원에 높은 가중치를 둠

제1절 사례분석

1. 선진국 사례분석

○ 청년실업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물론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높은 실업율과 함께 가장 큰 경제·사회문제로 부각

<표 5-1> 유럽 국가들의 청년(15~24세) 취업률 및 실업률(2004년)

(단위 : %)

국 가	청년취업률 (%)	청년실업률 (%)	전체실업률 (%)	사회모델 (앙드레샤피르분류)
프랑스	30	22	9.6	라인란트모델
독 일	42	15	10.3	라인란트모델
영 국	55	12	4.7	앵글로색슨모델
아일랜드	48	8	4.5	앵글로색슨모델
덴마크	62	8	5.5	북유럽모델
네널란드	66	8	4.6	북유럽모델
스페인	34	22	11.0	지중해모델
이탈리아	28	24	8.0	지중해모델

자료 : EU통계국, 프랑스통계연구소.

○ 유럽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매우 높고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임

- 복지제도를 근로와 연계하는 앵글로색슨과 북유럽 모델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노동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른 EU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일본은 구인질서 확립 및 구인 확보·조정, 관계기관간의 연계 강화, 학생직업센터 및 학생직업상담실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EU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실업률을 유지

○ 미국의 근로연계와 유럽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간 모델로서 영국의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프로그램과 일본의 청년자립·도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많은 시사점 제공

1) 영국의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프로그램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장기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니블레어정부는 복지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전략 제시

○ 근로연계 복지급여제도인 청소년(10~24세) 뉴딜정책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청소년 뉴딜 참가자의 실업층 56%를 감소시킴으로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으로 각광을 받음

□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 전략의 목적

○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및 훈련 그리고 근로경험 제공을 통해 취업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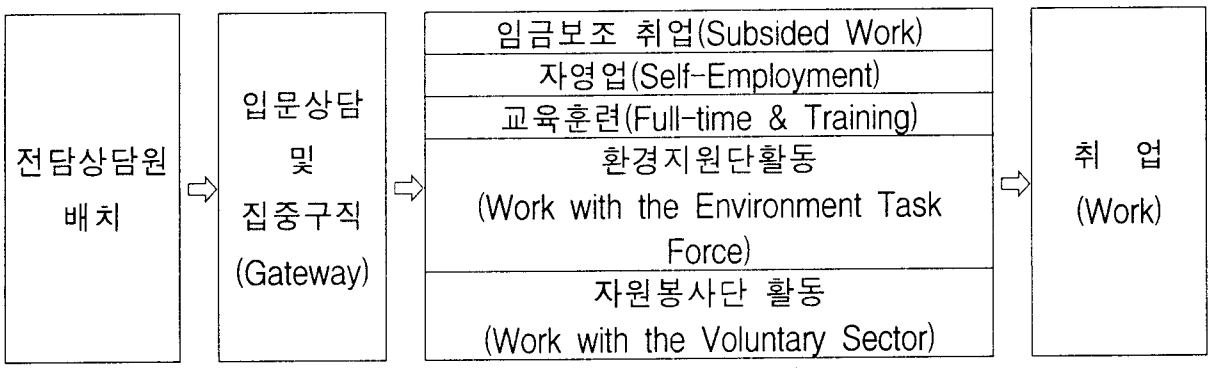
○ 상담제공, 훈련, 기회개발을 통해 장기복지급여 수급자의 특성 및 동기를 변화

○ 조세와 급여체계를 개혁하여 급여수급자가 취업하도록 확실한 유인 제공

□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 프로그램

○ 뉴딜 정책은 법적 강제, 금전적 보조, 직업훈련 보조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 구조는 <그림 5-1>과 같음

<그림 5-1> 뉴딜프로그램의 기본구조



자료 : www.theste.org/nedeal/diagram/index.html, 황덕순, 2001, 재인용.

○ 청소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 프로그램

- 뉴딜 정책의 기본구조에 따라 실직 후 6개월간 재취업을 못한 청년(10~24세)실업자는 4개월간 기초 구직과정(게이트웨이, Gateway)에 입문하여 개별 지도상담원에게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지도·감독 받고 2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게이트웨이(Gateway)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취업을 못한 청년은 일반취업, 환경근로, 자원봉사, 교육과 훈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표 5-2> 청소년 뉴딜 프로그램의 네 가지 옵션

종 류	내 용
일반취업(Employment Option)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최장 6개월간 취업, 고용주에게 6개월 보조금과 훈련수당 지급, 취업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환경근로(Environment Task force Option)	최장 6개월간 환경관련업무에 종사(공원/산림 관리 등), 임금=구직자수당+필요경비지급
자원봉사(Voluntary Sector Option)	자원봉사기관에서 근무, 임금=구직자수당+보조금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Option)	취업능력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장 1년간 교육과 훈련, 구직자수당+필요경비지급

자료 : www.newdeal.gov.uk, 김종일, 2001, 재인용.

- 네 가지 옵션을 거부하는 경우 경우에 구직자 수당이 2주간 지급 중지되며, 이러한 제재를 세 번 이상 받으면 6개월간 수당 지급 중지

□ 영국(잉글랜드)의 청소년층(14세~19세) 직업교육 개혁 사례

○ "14~19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개혁(14~19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Reform)

- 자국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Curriculum 2000 개혁 한계
- 청소년층(14세~19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적인 직업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질적 수준 강화
- 국가가 직업교육내용과 국가자격 기준 개발 관리하고 직종별 단체나 조합등 산업체가 주체적으로 참여

○ 영국 직업교육 개혁의 특징

-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능력을 지원하도록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설계
- 직업교육과 직업자격이 인문교육 및 인문자격과 동등성 확보 위한 노력
-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방식으로 자격제도 설계
- 직업교육과정은 곧 자격취득과정으로 통합 운영 즉 엄격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 부여하여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 제고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 봉착기초직업능력 확산에 어려움
- 장기,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육개혁 플랜과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부족

2) 일본의 청년실업대책 : 청년자립·도전 프로그램

○ 일본의 청소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실업률 및 이직률 그리고 2001년 현재 417만명에 이르는 프리타(free arbeiter) 현상으로 야기되는 일본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불안에 대한 정책 필요성 증대

○ 2003년 6월 10일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이 공동 발의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및 기업 제도개혁

□ 기본방향 및 전략

○ 기본방향

- 청년실업 흐름 전환을 목표로 취업기회 창출, 인재육성, 교육, 인재 육성, 고용 등 사회체제의 비효율성 제거
- 취업기회 창출과 인재육성의 선순환과 정책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을 목표로 청년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창업 및 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 창

출, 취업기회 창출하며 능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신규 취업증대와 연계하는 인재 육성정책 강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산업계 참여 제고시킴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는 "청년을 중심으로한 고용촉진·인재 육성에 관한 공동 제언(2003.5.13)"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참여
  ①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차원의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대한 협력
  ② 인턴십 및 도제의 고용 등을 적극 수용
  ③ 바람직한 인재요건 명시, 일자리 발굴, 취직설명회·면적회의 실시 등 정보제공과 매칭 기능 강화
  ④ 직업별 커리어맵 작성과 표준적인 인재 프로그램 책정에 대한 협력
  ⑤ 강사파견, 학생·교사의 직장체험 기회 적극 수용
  ⑥ 창업 및 기업 지원 사업 강화

○ 전략

- 3년간 인재 대책을 강화하고 일에 대한 청년의 의욕 제고 및 직업적 자립을 촉진할 것
- 부처간 협력, 정책간 연계 강화하여 종합적 추진
-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존중하여 지역이 주체적인 역할 수행
- 질 높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인·기업·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
-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하고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년자립·도전 프로그램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추진 : 문부과학성

- 신진로교육플랜으로 개인의 올바른 근로관과 직업관 형성을 위해 아동발달 단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추진
- 학교, 기업 등 지역 관계자들과 연계 및 협력하여 초등학교부터 직업 체험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 인터쉽의 다양화, 내실화, 학점인정 및 산학연관 협력 추진체 강화

- 기업 및 사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다양한 교육활동 장에서 적극 활용

○ 청년의 능력 향상 및 취업선택기회 확대 : 문부과학성

- 장학금확대와 효과 높은 교육훈련급부제도 중점 운영하여 고도 전문능력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커리어고도화플랜(산학연관을 통한 선도적인 단기교육프로그램, 전문직 대학원 등) 수립

○ 일본식듀얼시스템과 프리타교육플랜 : 후생노동성

- 실무·교육연결형인재육성시스템인 일본식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통해청년 지향적인 실천적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기업 실습과 교육·직업훈련을 결합
- 프리타교육플랜으로 취업기초능력 제고와 실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과 직업적 자립 지원

○ 전문인재의 양성·배치 위한 취업 지원 및 진로형성지원체제의 정비 : 후생노동성

- 청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1대1 취업지원제도, 적성과 능력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진로상담사 양성 및 학교에 적극 활용

○ 청년노동시장의 정비 : 후생노동성

- 졸업후 취직탐색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복수응모제, 수시채용 보급, 연습고용의 적극 활용, 진로 탐색 및 형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청년조동시장 정비. 기업의 요구하는 청년 인재 요건 명확히 설정 제시, 기능계 자격 직종 확대와 사무관리분야의 비즈니스커리어제도 활용, 커리어 패스포트 구축하여 직업진로 상담 및 구직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
- 학교 졸업생 및 청년의 직업능력표준화를 통해 실천적 직업능력을 평가·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채용기준, 목표 및 청년의 진로 설정 등에 활용
- 청년기초능력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주요 능력인 의사소통능력,기초학력,책임

감,적극성,외향성,자격취득,행동력· 실천력,비즈니스메너등에 대한 학력별 청년취직기초능력 목표를 세워 "국가취직기초능력증명서(가칭)"를 통한 국가 청년능력공증 제도 계획

○ 청년창업챌린지플랜 : 경제산업성

-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취업기회 창출
- 창업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기업예비군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벤처기업 실천형 인턴쉽, 창업 도전 인재 발굴·양성, 신사업 창출 및 신기술 사업화
- 산업재생 및 창업 촉진형 인재의 중점적 육성을 위해 실천적 창업교육 지원, 고도인재 능력 표준 책정, 산학연관 협력, 지적재산전문인재양성, 초중고교생에 대한 체험·참가형의 기업가 교육을 통해 미래기업가와 청년경영자 육성 촉진
- 창업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축으로 한 정책 시행. 최저임금제 철폐, 유한책임회사와 유한책임조합 도입, 신산업 연구개발과 실용화 연구 및 그 지원을 행하는 시설 정비

○ 지역차원의 청년대책인 청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Job Cafe) : 후생노동성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학교 등의 협력네트워크가 주체가 되는 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센터
- 지역 청년에 대한 직업과 능력 개발,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인턴쉽 등 직장 체험기회 확보, 커리어컨설팅 및 취직지원서비스 제공
- 민간부문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 성과와 실적 등을 평가

3) 기타 주요국 청년실업대책

○ 1998년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매년 고용정상회담을 열어 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범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년 실업정책을 추진

<표 5-3> OECD국가의 청소년 고용촉진 주요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	비고
도움닫기일자리 (Springboard jobs)	30세미만으로 6개월 미만 취업 경력자	-최대 12개월간 민간 또는 공기업 근무 -인턴근무 기간 중 통상임금 90%수령 -정부는 사회보장세 감면과 임금의 90%까지 지원	벨기에
근로계약훈련 (Work-training contract)	30세미만의 구직자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3%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훈련생은 통상임금의 90%를 수령 -정부는 사회보장세 감면과 임금의 90%까지 지원	벨기에
적응계약 (Adaption contract)	15~25세 구직자	-최저임금 일부를 수정하면서 최대1년간 기업체 수습 -사업주 사회보장세감면과 최저임금적용 면제(최저임금30%~75%지급)	프랑스
근로훈련계약 (Work-training contract)	15~29세 고졸이상 구직등록자	-최대1년간 기업에서 훈련과 수습근무를 병행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 -정규채용시 사회보장세감면1년 연장	이태리
고용지원 (Employment subsidy)	16~30세 청소년장기실업자	-사업주 사회보장세 50% 감면, 훈련비 일부 지급 -정규직 전환시 보조금 지급(단, 이 경우 전년 대비 총 근로자수가 증원 필요)	포루투갈
실습계약 (Practice contract)	30세 미만으로 졸업후 2년 이상 경과	-최대 2년간 실습기간 중사회보장세 감면과 임금하향지급 인정 -정규 채용시 2년간 추가 사회보장세 감면	스페인
훈련계약 (Training contract)	16~21세 부기능자	-최대 2년간 훈련사업주에게 사회보장세 감면 -정규 채용시 2년간 추가 사회보장세 감면	스페인

자료 : 노동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자료, 2001.

○ 덴마크는 기업이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대신,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실직자 재교육에 쓸 정도로 해고당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은 1999년부터 학교 교육에서 직업훈련을 거쳐 고용을 촉진하는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프로그램'(JUMP)를 시행
- 프랑스는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공공부문의 청년(18세~26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고용연대계약 프로그램과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정부가 사회보장 관련 기여금 납부를 감면해 주고 임금도 지원해 주는 고용강화계약 프로그램을 시행

○ 미국은 청년들의 신규 고용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노동'노동기회세액공제'와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세액공제' 프로그램과 그리고 '학교-일자리 기회법'(1994)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 전통적으로 미국은 기업의 임금 보조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국가들은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EU)국가들도 영국의 청년뉴딜프로그램처럼 청년들의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

○ 대부분의 국가들이 청년실업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산업계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참여, 부처간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노력, 지역 주체의 청년실업 대책과 실천적인 교육훈련 정책 등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

2.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참여정부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2003. 9. 22)을 발표

- 상기 보고서를 보완하여 2005년 1월 청년고용촉진책을 발표
-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실업대책을 발표

□ 청년실업 종합대책(2003. 9. 22)

○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
- 학교에서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

○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동 기간에 취업의사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병행
- 신규직보다 경력직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에 대비해 인턴쉽 등의 직장체험기회 제공
- 구직자와 구인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관련 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 청년고용촉진 정책(2005. 1.)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이는 민간부분의 채용여력이 위축됨에서 발생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고용창출여력을 감소시켜 청년실업의 획기적 개선을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임

○ 이러한 현실적 인식에서 기존 정부의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실업대책을 수립

○ 청년실업완화를 위한 단기정책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

<표 5-4> 청년실업 대책의 사업내용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1-3.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작 및 협의체 구성			
1-3-1. 직업지도자료 학교 보급 확대 및 비치·열람	노동부	교육부	보완
1-3-2. 중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중기처		신규
1-3-3.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노동부	교육부	신규
1-3-4.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문광부	신규
1-3-5.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문광부	신규
1-3-6.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기존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2-1. 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2-1-1.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	교육부	노동부	보완
2-1-2.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교육부 노동부		신규
2-1-3. 취업률 등 대학평가에 반영	교육부		신규
2-2. 대학 교육과정 모델 발굴·보급			
2-2-1. 대학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신규
2-2-2. 교육과정의 수요적합성 평가	교육부 산자부		보완
2-3.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3-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산자부	교육부 노동부	보완
2-3-2. 공학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	산자부	교육부	보완
2-3-3. 학교기업 확대	교육부		기존
2-3-4. IT인력 전공역량 혁신	정통부		신규
2-3-5. 계약학과 제도 운영 확대	교육부		보완
2-4. 대학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		보완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3.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3-1. 직업훈련의 혁신			
3-1-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노동부		신규
3-1-2.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교육부 노동부		보완
3-1-3. 기능대학 체제 전환	노동부		보완
3-1-4. 이동식 직업훈련 및 온라인 교육 확대	노동부	중기청	보완
3-1-5. 근로자 훈련비용 소득공제 등 추진	재경부 노동부		신규
3-1-6.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기존
3-1-7.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기존
3-1-8. 취업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기존
3-1-9.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	정통부		기존
3-1-10. 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기존
3-1-11.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기존
3-1-12.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산자부		기존
3-1-13. IT 중소벤처 기업인력지원	정통부		기존
3-1-14.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신규
3-2. 수요중심적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3-2-1. 특성화 실업계 고교 육성	교육부	산자부등	신규
3-2-2. 취업협약 체결 등	노동부 중기청		신규
3-2-3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부		기존
3-2-4. 대학 실습실 지원	중기청		신규
3-2-5. 어학·실무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부		신규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4.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노동부		신규
5. 청년 취업지원기능 강화			
5-1. 대학 취업지원부서 확충 지원	교육부 노동부		신규
5-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여성부		보완
5-3. 여대생 취업네트워크 강화	여성부		보완
5-4. 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기존
5-5.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기존
6.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6-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교육부	노동부	보완
6-2. 고학력자 직업이동경로조사(가칭)	노동부	교육부	신규
6-3. 청년 work-net 구축	노동부		보완
6-4. 맞춤식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노동부		보완
6-5.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동부		보완
6-6. 중소기업 정보제공 강화 추진	중기청	노동부	신규
6-7. 직업소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	노동부		신규
6-8. 청년패널 확대	노동부		보완
6-9. 노동시장 정보자료 생산·보급	노동부		보완
6-10.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기존
7.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7-1. 청년실업대책 종합정보 제공	노동부		신규
7-2. 청년실업대책 홍보 강화	노동부	각 부처	보완
7-3.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창구 연계	노동부	각 부처	신규
7-4. 청년실업대책사업 성과지표 개발	노동부 예산처	각 부처	신규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8. 단기 일자리 제공			
8-1.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기존
8-2.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보완
8-3. 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보완
8-4.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기존
8-5.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기존
8-6. 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기존
8-7. 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기존
9. 해외취업 지원			
9-1.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기존
9-2.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기존
9-3. 청년무역인력양성	산자부		기존
9-4. KOICA 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기존
9-5.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기존
9-6.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신규
10.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10-1.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기존
10-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		신규
10-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신규
10-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신규
10-5.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신규
10-6.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기존
11. 창업지원 등			
11-1. 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기존
11-2.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기존
11-3.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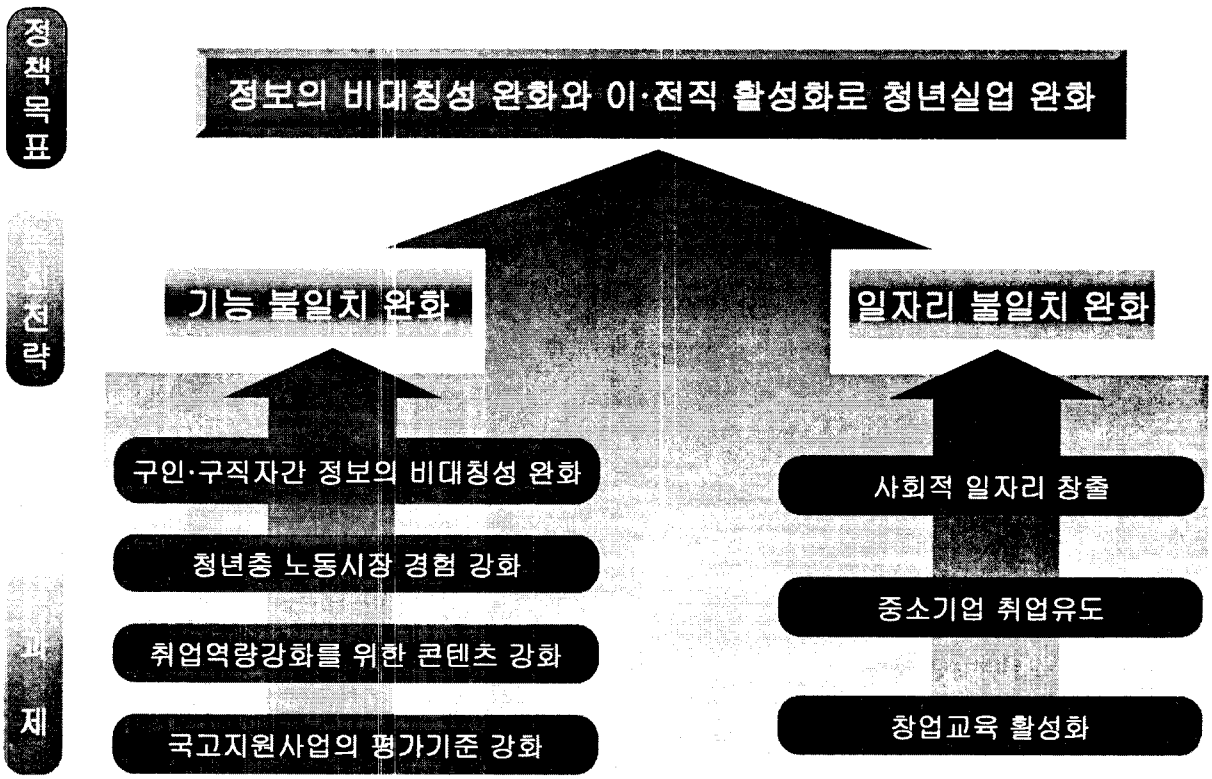
3. 지방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경기도 '청년 뉴딜사업'

○ 경기도는 청년실업 해소책으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가동

-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구직자 적성과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용 가능성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임
- 2005년 초 가동된 청년뉴딜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에 성공한 영국의 청년뉴딜사업(New Deal for Young People)을 벤치마킹
- 경기도는 시범사업으로 38억여 원을 들여 취업전문업체인 인쿠르트 및 스카우트와 제휴, 고졸과 대졸자 등 800명을 모집
- 이들을 권역별로 나눠 밀착상담(6주), 직장체험(최장 9개월), 직장알선(3개월) 등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음
- 밀착상담 기간에는 진로 결정을 위한 외부정보와 자기탐색(직장정보, 직업 찾기, 셀프 마케팅, 성공경험담), 취업스킬(이력서 작성법, 인터뷰 성공법, 이미지메이킹, 인적네트워킹) 등의 교육이 실시됨
- 도는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밀착상담 기간에 30만 - 45만원, 교육훈련 때는 훈련수당 월 40만원, 직장체험 때는 최장 9개월간 매월 86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제2절 단기적 정책과제 도출



1.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는 구인·구직자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이·전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인터넷이 청년층의 일자리 탐색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자간 정보유통 메카니즘을 강화하여 일자리 불일치 완화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과정 및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청년층 취업 및 이·전직 활성화를 통한 기능 불일치 완화

○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사업, 간병 등의 공익적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단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완화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

○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강화

-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및 3D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구직난속에 구인난이 존재하는 현상이 심화
- 따라서 청년층이 직업선택에 관한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2. 정책과제

1) 청년실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차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구 및 특성을 파악

○ 파악된 개인차원의 직무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웹 기반의 학습콘텐츠를 개발

○ 개발된 학습콘텐츠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사업내용

○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 개발

- 학습 콘텐츠는 기업, 정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의 지원 확보
- 개발된 학습 콘텐츠는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운영

○ 취업정보의 제공 및 공유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최근 국가적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개인역량강화 및 조직역량강화 콘텐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함

- 청년층 취업지원자들이 개발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
- 개발된 학습콘텐츠의 지속적 보완과 보다 폭넓은 취업지원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학습콘텐츠의 개발계획을 통한 지원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한 학습운영관리시스템(LMS)과 운영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

□ 기대효과

○ 청년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확률을 제고

○ 청년실업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능과 자질을 갖춤으로써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현재(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민간단체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주로 노동시장진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단기적인 소득보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여지는 거의 없음

○ 노동부에서는 공공부분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여기관은 비영리 법인 단체,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공공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기관,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표 5-5 > 사회적 일자리 예시

노동	외국인 근로자 상담·적응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안전	안전문화조성, 어린이 안전 문화 교육장 운영 등
보건복지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이동 생활지도, 무료간병,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등
환경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산림 및 수자원 관리(환경 오염감시 등), 녹지대 재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물 재활용 등
문화	건전 청소년 문화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지역문화개발 등

자료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3년도 시행지침.

□ 사업내용

○ 사회적 일자리는 평생 직업이 아니며, 사회적 일자리 경험이 민간부문 취업시 전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체험이 공공부문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부정수급이나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 있음

○ 정보화 구축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진행시키면서, 철저한 모니터링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청년실업자가 노동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의 실업 완화와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부가적 효과 창출

3) 중소기업에의 취업 유도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지만 중소기업 및 일부 직종은 구인난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충북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소득향상에 따라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과 특정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발생

○ 청년층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함

□ 사업내용

○ 현재 중소기업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우수중소기업탐방, 중소기업취업교실 등의 사업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2001년에 5천개 업체, 1만 여명의 대학생이던 것에서 2003년 4천 3백개 업체에, 6만 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Business + School 의 합성어인 비즈쿨(BizCool)사업은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 다양한 진로모색을 유도,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가 목적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대기업의 2.8배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Clean 3D 사업 및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2003년 174억원)을 실시

- 열, 냄새, 분진, 고온, 고압 등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기, 설비, 시스템, 대체물질 등을 개발하고, 개발된 성과물을 참여업체의 생산현장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임

○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노력

- 방송 드라마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공사례나 우수 중소기업 홍보가 인식제고에 영향 클 것임

○ 대기업과의 근로격차 해소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간접적 고용효과 기대

- 이 제도 시행으로 해당 기업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런 효과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나타남

○ 근로격차 해소를 위해 인건비 보조 제도와는 다른 형태로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 주택우선분양 기회를 제공, 창업자금지원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중소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일정기간 대기업 근무 후 창업해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대기업→창업으로 이어지는 경력개발 경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필요함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하고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

○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4)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 사업내용

○ 노동부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6>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현황

구 분	2002. 4	2002. 12	2003. 4
참가신청자	22,439명 (취업지원 12,076명 연수지원 10,363명)	72,484명 (취업지원 19,083명 연수지원 53,765명)	22,652명 (취업지원 4,088명 연수지원 18,564명)
선발자	13,232명 (취업지원 6,132명 연수지원 7,101명)	46,802명 (취업지원 11,311명 연수지원 35,491명)	19,462명 (취업지원 1,877명 연수지원 17,585명)
참여기업	취업지원 8,468개 연수지원 2,708개	취업지원 12,720개 연수지원 5,835개	-
학점인정	6개 대학	42개 대학	54개 대학
개정사항	기존 인턴 지원제에 연수지원제를 추가	-	사전 직무훈련비용 지원 대학주도의 산·학·정 연계체제 강화

○ 이외에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 학습, 환경부 환경산업현장 인턴쉽 시범사업, 문광부의 문화콘텐츠 사업 해외 인턴쉽 수행지원 사업, 여성부의 국제전문 여성 인턴 선발제도,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이러한 제도에 도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점인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중앙정부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지역기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도내 청년층의 직업경험을 강화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직업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증진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

○ 직업경험을 통해 미래의 사회인으로써 올바른 자신의 목표설정과 체계적 준비과정을 수행

5) 창업교육의 활성화

□ 목적 및 필요성

○ 창업강좌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매커니즘을 구축

□ 사업내용

○ 창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 원리의 적용을 통해 우수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기술력에 바탕 둔 창업 지원
- 창업보육센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 위주의 지원체제 구축

○ 유사사업에 대한 부처간의 연계,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 필요

○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현재보다 다수에게 창업기회가 부여되고 창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중요

○ 충북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IT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벤처창업을 활성화

- 창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상 지원 및 신규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회계 등에 관한 무료 컨설팅 수행
- 충북 테크노 파크 등의 기관을 이용하여 관련 업계에 대한 시장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 기대효과

○ 청년층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

○ 지역내 청년층의 벤처창업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역동성 및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작용

6) 도내 취업률 반영 등 인력양성 관련 국고지원사업의 평가기준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현재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대학의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

- 국고지원사업의 지자체 평가절차를 지역 청년실업 완화 유인으로 활용 필요

○ 향후 국고지원사업 수혜를 위한 대학의 제반 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지표 게시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주관하는 인력양성 관련 국고지원사업의 평가에 취업관련항목 배정

- 현재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협약학과 사업 등은 지자체(현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평가)에서 평가

- 현재 국고지원사업은 지자체의 평가가 전체 평가의 일부분으로 배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

○ 국고지원 사업의 내용이 자체 대학 뿐 아니라 실업고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취업개선에 기여할 수 프로그램에 가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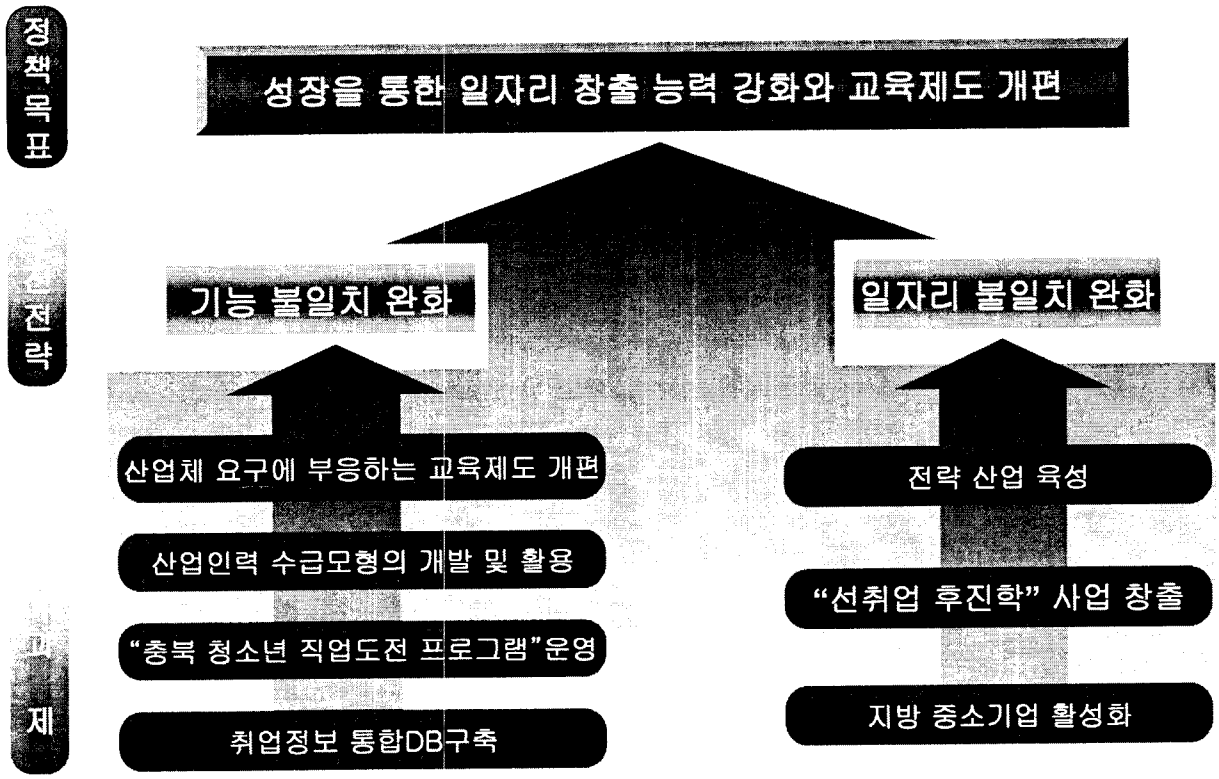
- 향후 지자체의 대응투자 결정에도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높은 대응투자 지원

□ 기대효과

○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국고지원이라는 유인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학의 취업률 제고 노력 기대

○ 대학이 실업고 및 훈련기관까지 취업률 제고의 대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3절 중·장기적 정책과제 도출



1.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방향은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충하는 것임

- 지역내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목표를 설정
- 특히, 충북의 기업지원 서비스업의 발전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률, 회계, 번역 등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별도의 직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채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대학의 커리큘럼 등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2. 정책과제

1)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투자와 '선취업 후진학'의 신규사업 창출

□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적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해소방안 제시 미흡

○ 취업을 전제로 한 국고지원 사업이 미약하고,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와 실업고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 전무

○ 중앙정부의 실업해소 지원자금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지 미약(예: 협약학과 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3%의 대응투자를 결정했으나, 충북은 관계법령 미비와 의회통과를 구실로 대응투자 없음)

□ 사업내용

○ 협약학과 사업의 유형

- 산업체-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 협약학과 사업의 대표적인 2개 모형은 다음과 같음

- 1모형: 실업계고 졸업한 후 산업체에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 진학(야간, 주말과정 등으로 재학)
- 2모형: 실업계고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산업체에 취업(방학기간동안 산업현장 인턴쉽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조기취업)

○ 지원자금의 10%는 장학금 지급가능하고, 병역특례를 현재 검토 중이어서 산업체와 잠재 적취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자금수혜를 위하여 적극적 의지 표명

○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취업을 전제로 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여, 취업이 보장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청년실업을 해소

○ 현재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누리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자체의 평가를 거쳐 중앙정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평가에는 도내 대학의 취업률을 적극적으로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재원의 부족에 대하여 충북 도 내 대학의 투자로 도청 내에 '고용창출 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그동안 인적자원 및 고용의 연구경험이 있는 도 내 대학의 전문인력을 '고용창출 task force team'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협약을 대학과 체결

□ 기대효과

○ 대학과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타 지역보다 앞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정부지원 자금의 수혜에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여 지원자금을 획득

○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국고지원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실업해소 관련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정부담 완화

2)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여건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미흡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임

□ 사업내용

○ 충북의 전략산업인 IT·BT산업은 핵심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성정하는 산업으로 지역내 우수인재의 육성으로 관련 기업의 지역내 입주를 촉진시킬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 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

○ 또한 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 양성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Spin-off의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하게 해 청년실업 완화에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안임

○ 충북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축으로 전략산업의 발전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오송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외자유치 및 국내 유망 기업의 입주로 생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또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던 기업도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충북의 성장을 이끌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역시 순조롭게 부지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및 오송신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해야 함

- 현재 지역 소재 기업은 금융, 세무, 행정 등의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산업구조가 3차산업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기업지원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특히, 지역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통·번역, 세무, 법률 등의 부문을 집중 육성할 경우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지역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 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 기반 확충

○ 우수한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취업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잠재력 확충

3)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전략산업과 더불어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은 산업구조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안정적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수중소기업 발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함

○ 체험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체험활동(중활), 중활아카데미, 우수 중소기업 탐방기회를 확대해야 함, 중활 등에 참여하는 학생, 학교, 중소기업에 소요비용 보조, 취업알선 및 학점인정 등의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인식변화 도모

○ 인턴제를 단기적인 실업대책 수단에서 청년층의 고용·취업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직장체험, 국내외 연수제도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해야 함

○ 청년실업자와 중소기업간에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하여 상호간 조건에 맞는 구인구직자를 자동 매칭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및 산업기능요원 규모의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고 자신이 다니던 혹은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순히 병역대체 복무제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유휴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의 완화를 도모

○ 대학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 교육개혁이 절실함

- 이공계 전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여건 조상
- 대학도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게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바로 적응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강화

□ 기대효과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의 고용창출 여력 확대

○ 청년층의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 및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 견인

4)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유연화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 즉시 투입형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현재의 학교교육이 가지는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산업체에 있는 우수한 강사인력을 대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 사업내용

○ 다학기제 등 현행 교육체제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다학기제의 도입을 통해(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로 개편) 초기 두 학기만 수업 듣고 나머지 학기에는 일자리 갖는 걸 가능하게 하는 여건 조성
- 대학내 교육과정의 모듈화를 통한 다양한 트랙 구축 유도
- 4년제 대학의 상당수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동일 대학내에 두 개의 트랙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즉 학문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 또한 동일 학과(학부)내에서도 학문중심과 직업교육중심과정의 이원화된 로드맵(road-map)의 구축 가능

○ 대학 등의 자율적인 학과 및 정원 조정 유도 등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 추진

-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나 향후 유망직업 및 전공등과 관련해서 대학내부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생성하여 제공
- 미래 인력수급 전망이 세부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계 인프라 구축
- 정원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대한 유인책 마련
- 기존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도 전공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전공전환 프로그램 개발시에 행·재정적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 산·학·연 석박사 과정 제도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개선

- 산업체 위탁교육의 경우, 무엇보다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의 뒷받침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위탁교육 실시 대학에 대해 그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
- 주문식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주문식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 방안을 강구

□ 기대효과

○ 교육과정을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함으로써 현장지향형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청년 실업을 완화

○ 교육의 현장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직자는 취업확률을 제고시키고 구인자는 직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

5) 지역차원의 산업인력 수급모형을 이용한 중장기 대책 수립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산업인력 수급모형을 개발

○ 인력수급모형을 통한 예측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경제주체의 직업선택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인력양성과 활용에는 장기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산업인력 수요 예측 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는 보완작업을 병행
- 또한 지역산업인력 수요예측은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전국적인 변화추이를 반영해야 함

□ 사업내용

○ 지역차원의 산업인력 수급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중장기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보조자료로 활용

○ 산업인력은 양성시점과 수요발생시점 간에 시차가 존재하며 이때 지역의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 공급시점에 있어 특정 인력의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현상을 발생시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게 됨

○ 산업인력의 양성은 좀더 장기적이고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이용하여야 함

- 또한 산업인력 수급모형은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모형을 이용한 예측결과는 지방정부의 인력정책 및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충북지역의 산업인력 수급모형은 2005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모형 작성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동 모델을 이용하여 연령별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지역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대학의 커리큘럼과 연결시켜야 함

□ 기대효과

○ 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지역 산업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완화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미래 채용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함으로써 취업 불확실성을 감소

6)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충북 청소년 직업도전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 생애 기간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는 다모작 직업시대에는 연령대별로 직업계획을 갖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여 인생을 경영해야 함

○ 첫 직업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한 자립심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

○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년실업에서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

○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자세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이며 국가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에 최대 장애가 됨

○ 정부 각 부처나 대학 등의 지역 청년실업 대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내용의 중복이나 효과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할 필요 있음

□ 사업내용

○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아인식과 직업에 대한 이해, 자립적인 인생설계, 직업교육과 직업체험, 직업훈련, 직장연수 그리고 취업정보 탐색과정을 통해 직업을 선택

○ 청소년 직업 강좌 운영

- 충북의 청소년들이 땀과 근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에 대한 도전심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립심을 고취

- 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의 참 의미, 바람직한 직업관,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 및 인생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킴
-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직업박람회 개최

- 충청북도가 정부 각 부처나 대학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실업 대책과 프로그램들을 한 공간에서 이벤트화
- 청소년들의 직업 도전 의식을 제고하고 충북 청년 실업 대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다양한 직업 세계관, 실험·실습 작품관, 진로·직업교육 자료관, 가상 직장 체험관, 정부부처와 대학의 청년실업 대책 및 프로그램 홍보관 등을 집적화
-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충북인적자원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중앙 부처, 지역 산업 및 대학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하고 직업에 대한 도전심과 자립심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충북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및 청년실업 완화

○ 충북 인적자원의 역량이 향상됨으로써 충북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과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청년실업 대책들을 집적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에 지역산업체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에 청년실업의 중요성을 홍보

○ 충청북도가 산·학·연·관 협력의 중심에서 정부 각 부처의 지역 청년 실업대책들을 홍보하고 조정함으로써 충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년 실업대책이 가능하고 청년 실업대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정책의 효과 극대화

7) 「Job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취업정보 DB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구인자·구직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

○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으로 구인자의 인력채용비용과 구직자의 직업탐색비용을 줄여 사회후생 극대화에 기여

○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현황과 취업 현황 파악

○ 소외계층의 직업훈련과 적합한 고용 유도를 위한 직업정보 구축

□ 사업 내용

○ 고용안정센터, 자치단체별 취업정보망 등 분산된 노동시장 정보를 한 곳에 취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DB 설계 및 운영의 주체를 담당하여 취업정보 DB 구축에 대해 도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기업체와 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양자를 연결해 줌

- 가상의 웹사이트 공간에서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각각의 니즈에 맞춰 직업 및 근로 희망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강화

○ 여성들에게 취업관련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직업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운영 및 관리

- 여성관련 전문직종에 대한 설명 및 취업전망, 직업능력 향상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여성 고용 희망 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운영

○ DB 구축과 관리, 지속적 업데이트 등 통한 살아있는 취업정보 제공에 노력

□ 기대효과

○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실업기간 단축 및 마찰적·구조적 실업자 최소화

○ 산업별, 직종별 인력 수급모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취업 및 재취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활성화로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 인력양성과 인력수요에 관계된 기관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증진

○ 충북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도 증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충북의 경우 2005년도 충북의 실업률은 2.2%로 전국평균보다 낮기는 하나 청년 실업률은 6.2%에 달하고 있음

- 충북의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비율은 전체실업률의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청년실업은 거시적인 고용 흡수력의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향과 서비스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는데서 발생

- 특히,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한 데 반해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구조적 수급 불일치와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청년실업의 요인분석을 통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청년층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북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구직자와 기업 간 Job mismatch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하였음
- 연구 및 조사 분석결과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충북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실행력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충북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하고자 함

□ 도내 대학생 등 노동 공급측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향후 진로는 창업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80% 정도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실업고 교육시스템 개편 또는 취업전환 방안 필요

○ 취업 시 보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면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적성과 흥미라는 상반된 의식이 있고,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

○ 취업을 대비하는데 있어서는 4년제 대학생은 어학교육 강화,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중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취업정보 수집통로는 취업정보는 학력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 충북지역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충북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나 4년제 고학력자는 충북을 이탈하여 취업하고자하는 성향이 높아 고급인력에 대한 충북권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남

- 충북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보수 및 근로조건보다는 충북이라는 지리적 편리함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기피사유로는 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사유가 24.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충북에는 자신의 전공기술 등을 발휘할 취업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충북 인적자원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충북지역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은 일자리 수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충북지역의 일자리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취업희망직종은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34.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에 관계없이 사무직을 선호함

□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 수요측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채용예정규모가 많고, 전반적으로 경력직보다 신입사원의 채용이 많으며 연령대별로 20대의 충원예정인원이 전체의 73.92%로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이 72% 정도 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연구개발직은 29.33%에 불과하여 고급인력 양성은 크게 미달되고 있음

○ 구인의 매체로는 대중 매체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인터넷을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취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 선호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충북지역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가 필요

○ 각 직종별 채용예정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수준은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연구개발직, 영업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순으로 나타남

○ 충북기업이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은 청년층이 근무환경의 쾌적함 등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노동의 유인요인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상호간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음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는 구인·구직자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이·전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첫째, 청년실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개인차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구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자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각종 컨텐츠를 강화하여야 함
- 둘째, 청년실업자가 노동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 셋째, 구직난 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청년실업자들이 지방의 중소기업에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함
- 넷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다섯째,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강좌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함
- 여섯째, 현재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대학의 높은 의지를 반영하여 향후 국고지원사업 수혜를 위한 대학의 제반 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내 취업률 반영 등 인력양성 관련 국고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충하는 것임

- 첫째, 도내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반해 지자체의 인적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산업별, 직종별, 연령별 구체적 해소방안 제시는 미흡하므로 지자체는 적극적 대응투자와 '선취업 후진학'의 신규사업 창출하여야 함
- 둘째,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미흡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

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므로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여건을 강화하여야 함

- 셋째,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를 수행하여야 함
- 넷째,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유연화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 즉시 투입형 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다섯째,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산업인력 수급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주체의 직업선택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함
- 여섯째, 첫 직업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한 자립심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도전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충북 청소년 직업도전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함
- 일곱째, 구인자·구직자 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Job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취업정보 DB 구축하여 인력채용비용과 직업탐색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부 록

설문지

[학생용, 기업체용]

『충북 청년실업』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충청북도의 의뢰를 받아 『충북지역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노동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직업선택의 불일치 요인분석 및 청년실업 원인을 규명하여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과 응답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 2

충북개발연구원장

이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담 당 : 윤창훈 충청대학 교수, 조택희 책임연구원
전 화 : 043-230-2172, 220-5491
F a x : 043-252-0116
E-mail : hoon6800@hanmail.net, thecho@cbdi.re.kr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 또는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자 일반사항

학 력	고등학교	재학( ) 졸업예정( ) 졸업( )
	전문대학	재학( ) 졸업예정( ) 졸업( )
	4년제대학	재학( ) 졸업예정( ) 졸업( )
나 이	만 ( )세	
주요전공	_____(학)과	
거 주 지	충북 _____ 시(군)	
향후 희망진로	취업( ) 창업( ) 진학( ) 자발적 실업( )	

2. 귀하는 어느 부문에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농림·수산·광업	①농업( )	②수산업( )	③광업( )
제조업	①음·식료품( )	②섬유 ( )	③봉제·가죽( )
	④목재·제지( )	⑤화학 및 화합물( )	
	⑥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		⑦기계( )
	⑧금속( )	⑨전자( )	⑩전기( )
	⑪의료·광학기기( )	⑫ 통신( )	⑬자동차 및 부품( )
서비스업	①전기·가스( )	②도·소매( )	③숙박 및 음식( )
	④운수( )	⑤통신( )	⑥금융·보험( )
	⑦부동산임대( )	⑧교육서비스( )	⑨사업서비스( )
	⑩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		⑪보건 및 사회복지( )
	⑫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		
기타	①건설( )	②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3. 귀하가 취업하기 원하는 직종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직종	①연구개발직( )	②기술직( )	③기능직( )
	④단순노무직( )	⑤사무직( )	⑥영업직( )
분야	①인사·교육( )	②경리·자금( )	③기획·조사( )
	④홍보·광고( )	⑤국내외 영업( )	⑥연구·개발( )
	⑦품질·기술관리( )	⑧설계·엔지니어링( )	⑨전산( )
	⑩구매( )	⑪마케팅( )	⑫총무·관리( )
	⑬생산현장 시공관리( )		⑭기타 특수직( )

4. 귀하는 취업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 )만원

5. 취업할 기업체 선정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업종( ) ②직종(부서)( ) ③보수( )
④회사명( ) ⑤생활환경( )
⑥기타( )

6. 당신의 직업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전공과의 적합성( ) ②적성과 흥미와의 일치도( )
③경제적인 수입( ) ④사회적인 공헌도( )
⑤평생근무 보장성( ) ⑥기타( )

7. 귀하는 취업하는 직장의 근로조건으로 어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u>두 가지</u>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주 5일제 근무( ) ②4대 보험 지원( )
③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
④노동조합 활동 보장( ) ⑤주택자금 지원( )
⑥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지급( )
⑦합리적 업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
⑧사무실, 작업 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 )
⑨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⑩기타( )

8. 취업을 대비하여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혹은 준비할 예정인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고르시오.

①전공공부( ) ②어학공부( ) ③상식공부( )
④컴퓨터 관련( ) ⑤자격증 취득( ) ⑥복수전공/부전공( )
⑦취업정보 수집( ) ⑧기타( )

9. 학과공부와 취업준비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을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①학과공부와 취업준비가 아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
②전혀 개별적이다( )
③무시할 수는 없으나 취업준비는 별도로 해야 한다( )
④둘 다 병행해야 한다( )

10. 취업을 위하여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고르시오.

①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 ②정보 수집중이다( )
③관심만 가지고 있다( ) ④하고 있지 않다( )

11.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혹은 얻을 예정인지 주된 통로를 두 가지를 고르시오.

①신문/방송( ) ②선배 및 친구( ) ③교수나 학과 사무실( )
④전문 취업 정보지( ) ⑤학교 취업지도 부서 ( )
⑥가족이나 친지( ) ⑦인터넷( ) ⑧노동부 산하기관( )
⑨취업설명회나 소개서( ) ⑩기타( )

12.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 ②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
③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 ) ④외모가 출중하지 않다는 점( )
⑤시사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 ) ⑥전공에 대한 지식부족( )
⑦기타( )

13. 다음에 제시된 구직을 하는데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이에 동의하는지를 해당 칸에 (√)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1	찾고 있는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3-2	취업을 위한 정보가 없거나 충분치 못하다					
13-3	자리는 있으나 보수나 고용조건이 맞지 않다					
13-4	기능이나 기술자격증이 없다					
13-5	나 자신의 구직노력이 부족하다					
13-6	학교의 취업대책에 만족한다					
13-7	전공이 취업희망분야와 일치한다					

14. 취업에 관련된 정보 중 자세히 알고 싶은 정보는?

①직종·업체별 취업 시기 및 방법( ) ②직종별 직무내용( )

③구체적인 면접 및 필기시험 응시법( )

④기관별 인사·교육제도 및 그 특징( )

⑤기관별 급여·복지 후생제도( ) ⑥기관별 주요업무 및 발전방향( )

⑦기타( )

15. 충북지역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①예(☞15-1로) ②아니오(☞15-2로)

15-1. 귀하가 충북지역 소재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지리적으로 인접한 통근의 용이성(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보수( )

③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근로조건( )

④충북기업에 대한 신속한 적응가능( )

⑤타 지역에 대한 거부감( ) ⑥타 지역으로의 낮은 이직가능성( )

⑦지인 등의 배경 활용( ) ⑧가족 부양 및 자녀교육 등의 편리성( )

⑨기타( )

15-2. 귀하가 충북지역 소재 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자신의 전공(기술)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자리가 없음(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보수( )

③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 )

④충북 기업 등 충북사업체에 대한 불신( )

⑤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

⑥타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이탈 욕구( )

⑦미래의 충북의 낮은 성장가능성( )

⑧기타( )

16. 충북지역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노동력(구직자)의 질적 향상(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 수 증가(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임금 해소( )

③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근로조건 개선( )

④산업별, 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재편성( )

⑤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취업주선 및 지원( )

⑥구인사업체의 구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매체 활성화( )

⑦구인자의 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 )

⑧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교육기회 확대( )

⑨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원인분석 및 연구 활성화( )

⑩기타( )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충북 청년실업』 정책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충청북도의 의뢰를 받아 『충북지역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노동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직업선택의 불일치 요인분석 및 청년실업 원인을 규명하여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과 응답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정책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 2

충북개발연구원장

이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담 당 : 윤창훈 충청대학 교수, 조택희 책임연구원
전 화 : 043-230-2172, 220-5491
F a x : 043-252-0116
E-mail : hoon6800@hanmail.net, thecho@cbdi.re.kr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질문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 또는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일반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업체명		*	소재지	충북 시(군)	
설립년도			산업분류코드	□ □ □	**
주요생산품 (제조업)			서비스업	_____업(구체적으로)	
자산규모 (2005년말)	( )억원		매출액 (2005년)	( )억원	

근로자수 (명)		연구개발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영업직	총계
	상근							
	비상근							
	합계							

* 사업체명은 응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 산업분류코드는 부록(6-8 페이지)을 참고하십시오.

2.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 분	경력직		신 입	
	남	여	남	여
2003년				
2004년				
2005년				

3.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사에 없는 직무는 표기하지 않음)

구 분	충북지역 거주자 채용비율(%)
연구개발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영업직	

4. 2006년 채용예정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연구개발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영업직				총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경력	신입
상근																												
비상근																												
합계																												

5. 귀사가 채용하는 각 직무의 학력별 적정 임금은 연봉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력은 3년 경력자를 기준으로 하고, 각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학력은 기입하지 않아도 됨)

구 분		학 력 (단위: 만원)					
		무관	고졸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박사
연구개발직	경력						
	신입						
기술직	경력						
	신입						
기능직	경력						
	신입						
단순노무직	경력						
	신입						
사무직	경력						
	신입						
영업직	경력						
	신입						

6. 귀사가 채용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근로조건은 어는 것이 있는지 모두 표기하여 주십시오.

①주 5일제 근무( )

②4대 보험 지원( )

③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 대학교( )

④노동조합 활동 보장( )

⑤주택자금 지원( )

⑥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수당 지급( )

⑦합리적 업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

⑧사무실, 작업 장 등 근무환경의 쾌적함( )

⑨업무능력 향성을 위한 교육지원( )

⑩기타( )

7. 인력채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합니까?

①자사 홈페이지( )　②잡 링크(인쿠르트, 리쿠르트 등)( )

③신문, 방송 등의 매체( )　④각 학교에 추천서 배부( )

⑤전문 취업 정보지( )　⑥노동부 등 외부기관 의뢰( )

⑦지인의 소개( )　⑧취업설명회( )

⑨기타( )

8. 인력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전공 성적( )　②어학실력( )　③컴퓨터 관련 능력( )

④자격증 취득여부( )　⑤인성( )　⑥업무에 대한 사전지식( )

⑦기타( )

9. 채용 시 다음 항목의 반영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직종별로 필요 없는 항목은 0으로 표기하고, 합계가 100% 되도록 작성)

구 분	항목 반영 비율(%)					
	자체 필기고사	인성 및 적성검사	어학능력	면접	기타	합계
연구개발직						100
기술직						100
기능직						100
단순노무직						100
사무직						100
영업직						100

10. 충북지역 거주자의 채용을 선호하십니까?

①예(☞10-1로) ②아니오(☞10-2로)

10-1. 귀사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취업희망자를 선호하여 채용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문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구직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접근의 용이성( )
②타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업무처리 능력( )
③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보수로 채용 가능( )
④채용자의 충북기업에 대한 신속한 적응( )
⑤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충북인 특유의 양호한 정서( )
⑥낮은 이직가능성( )
⑦채용자의 지인 등 직원의 배경 활용( )
⑧기타( )

10-2. 귀사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기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문항에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①필요 전공(기술)에 대한 업무능력 부족(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보수 요구( )
③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근로조건 요구( )
④타 지역에 비하여 불성실한 근무태도( )
⑤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
⑥충북지역 출신자의 노조활동( )
⑦당사 필요 전공에 대한 교육기관의 충북 내 부재( )
⑧기타( )

11. 충북지역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충북지역에서 배출하는 노동력(구직자)의 질적 향상(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일자리 수 증가( )

②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임금 해소( )

③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근로조건 개선( )

④각 산업별, 직종별 수요인원에 적합한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내용 재편성( )

⑤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취업주선 및 지원( )

⑥구인사업체의 구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매체 활성화( )

⑦구인자의 충북지역 정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 )

⑧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교육기회 확대( )

⑨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원인분석 및 연구 활성화( )

⑩기타( )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 부록 <한국산업분류의 업종별 코드>

코드 번호	업종명	코드 번호	업종명
01	농업	273	금속 주조업
02	임업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05	어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1	금속 광업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153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30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5	음료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71	제사 및 방적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172	직물 직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173	편조업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74	섬유 염색 및 가공업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181	봉제의복 제조업	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191	가죽 제조업	333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92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193	신발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2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2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12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221	출판업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35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361	가구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	기타 제품 제조업
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371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33	핵연료 가공업	37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41	기초 화합물 제조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42	의약품 제조업	41	수도사업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45	종합 건설업
244	화학섬유 제조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코드 번호	업종명	코드 번호	업종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1	수상 운송업
271	제 1차 철강산업	62	항공 운송업
272	제 1차 비철금속산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80	교육 서비스업
65	금융업	85	보건업
66	보험 및 연금업	86	사회복지사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70	부동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1	회원 단체
73	연구 및 개발업	92	수리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	기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9	국제 및 외국기관